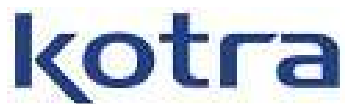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수정일자: 2011.06.20

작성처: 요하네스버그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7
- 주요 산업 동향 / 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11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1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1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16
 - 대한수입규제동향 / 17
 - 관세제도 / 18
 - 주요인증제도 / 19
 - 지적재산권 / 19
 - 통관운송 / 2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23
- 외국기업 투자동향 / 25
- 우리기업 투자동향 / 2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29
- 진출형태별 절차 / 32
- 투자입지여건 / 38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40
- 조세제도 / 42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44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45
- 물가정보 / 47
- 바이어발굴 / 48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49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52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53
- 이주정착 가이드 / 54
- 출장가이드 / 57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70
- 유관기관 웹사이트 / 71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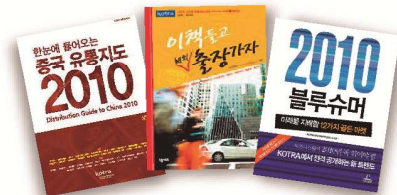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년
250만원/년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위 치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면 적	1,219,090 km ² (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
기 후	내륙 지방(온대성), 서부 해안(지중해성), 동부 해안(아열대성)
수 도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인 구	49.99백만 명(2009년)
주요 도시	요하네스버그(883.7만 명), 더반(319.2만 명), 케이프타운(365.3만 명), 프레토리아(245만 명) (Wikipedia)
인종 구성	흑인: 39.68백만(79.4%), 백인: 4.58백만(9.2%), 혼혈: 4.42백만(8.8%), 아시아계: 1.29백만(2.6%) (2010년7월 Statistics South Africa)
언 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종 교	기독교(79.8%), 카톨릭교(7.1%), 이슬람교(1.5%), 힌두교(1.2%), 토착신앙(0.3%), 유대교(0.2%), 기타(17.1%)
건국(독립)일	1910년 5월 31일 (영국)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국가 원수	Jacob Zuma(대통령, 취임일: 2009년 5월)

자료: 남아공 통계청, South Africa at a Glance 2008-09 등

나. 경제 지표

국내총생산(GDP)	US\$ 3,639억(2010)
경제성장률	5.0%(2006) 5.1%(2007), 3.2%(2008), -1.8%(2009), 2.8%(2010)
1인당 GDP	US\$ 5832 (2009년 nominal 기준)
실 업 률	25.3% (2010. 2분기 기준)
물가 상승률	6.5%(2007년), 13.7%(2008), 7.1%(2009), 5.7%(2010년2월)
화폐단위	RAND(ZAR)
환 율	1\$ = ZAR 6.59 (2010.end of period기준)
외 채	US\$ 45,254백만(2010년 기준)
외환 보유고	US\$ 41,665백만(2010년 기준)
산업구조	농수산업(2.4%), 광산업(6.0%), 제조업(16.3%), 전력(2.2%), 건설(2.9%) 도소매(13.9%), 운송(9.8%), 금융(19.4%), 정부(12.8%), 기타(14.2%)
교역 규모	○ 수출: US\$ 852억 (2010) ○ 수입: US\$ 844억 (2010)
교 역 품	○ 수출: 플래티넘, 금, 석탄, 승용차, 철광석, 다이아몬드 ○ 수입: 원류, 수출반품 재수입,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

자료: 남아공 중앙은행, 남아공 통계청, 남아공 관세

다. 한-남아공 관계

체결 협정	항공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6), 투자보장협정(1997) 국립검증원 기능향상사업협정(2000), 과학기술협력협정(2004)
교역 규모	○ 우리나라 수출액 - 2006년: 1,794백만 달러 - 2007년: 1,753백만 달러 - 2008년: 1,397백만 달러 - 2009년: 1,082백만 달러 - 2010년: 1,668백만 달러 ○ 우리나라 수입액 - 2006년: 1,385백만 달러 - 2007년: 1,766백만 달러 - 2008년: 2,159백만 달러 - 2009년: 1,171백만 달러 - 2010년: 2,272백만 달러
주요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건설중장비, 화학제품 등 ○ 우리나라 수입: 백금, 합금철, 동,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 위주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투자실적(2008. 3월 말 기준) - 신고기준: 210,133천 달러(99건) - 투자기준: 168,804천 달러(118건)
교 민	○ 약 4,000 명(2010년 9월 기준) - Gauteng주(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2000명, Cape주(케이프타운, 스텔렌보쉬) 1500명, KwaZulu-Natal주(더반 등) 기타 400명

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1) 집권 여당(African National Congress-ANC: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선거 압승

남아공 집권 여당인 ANC는 2009년 4월 22일 실시된 남아공 지방 선거에서 65.89%의 득표율을 얻어 득표율 16.66%에 그친 제1 야당(Democratic Alliance)에 압승을 거두었다.

남아공 집권 여당인 ANC는 이미 2004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69.7%의 지지율로 의회 의석 400석 중 279석을 차지한 바 있다.

남아공의 정치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나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다분히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남아공 집권 여당인 ANC는 중앙정부 및 9개의 지방 정부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최대 정치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한 셈이다.

2) 남아공 야당

남아공 최대 야당인 Democratic Alliance(DA : 민주동맹당)는 2008년 5월에 현 Cape Town 시장인 Ms. Hellen Zille (백인여성)을 새로운 당수로 선출하였다. DA는 새로운 당수 선출 이후 흑인 유권자의 지지 확대 및 소수 야당과의 정치적 연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백인 기반 정당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남아공 집권 여당인 ANC의 아성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론 국민회의당(COPE), 앙카타 자유당(IFP), 독립민주당(ID)이 있다.

3) 전 부통령(Mr. Zuma) 스캔들과 대통령 당선

남아공 부통령이며 ANC 부의장을 이임했던 줌마(Zuma)는 지난 2005년도에 강간 및 뇌물 수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음베키(Mbeki) 대통령은 줌마를 부통령 및 ANC 부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이후 줌마는 2006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다시 ANC 부의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강간 스캔들로 인해 음베키 대통령 이후 차기 유력주자로 거론되었던 줌마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었다.

2007년 12월, 남아공 집권 여당인 ANC 의장이었던 당시 음베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7년 12월 18일에 차기 의장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ANC 부의장인 Mr. Jacob Zuma가 의장인 음베키 대통령을 큰 표차로 누르고 새로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줌마의 뇌물수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오히려 음베키 대통령이 사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4월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약 66%의 압승을 거둠으로써 2009년 5월 9일 남아공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ANC 의장인 Mr. Jacob Zuma의 경우 친흑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남아공 최대 노조인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가 주요 지지기반이어서 향후 흑인 및 노동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기업 및 현지 백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2010년 10월 31일 주마 대통령은 9명의 장관 및 14명의 부장관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주마는 이 개각 단행을 통해 2011년 지방선거 및 2012년 ANC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마 대통령 지지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흑인 민주정부가 수립된지 17년이 경과한 현재 2011, 정치적 안정과 보수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따른 제반 경제지표의 안정화는 상당부분 달성되었으나, 실질 경제상황 개선수준은 흑인다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C가 여전히 흑인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신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ANC와 자연정(Tripartite Alliance) 관계인 Cosatu와 SACP(공산당)의 일부 정책노선(실업문제 대처 등)에 대한 이견과 연정내 권력분배 요구 증대 등으로 일부 정책이 좌파 성행으로 바뀔 가능성도 상존한다.

나. 사회 동향

1) 극도의 치안 불안 상황 지속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특히 남아공의 상업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는 세계적인 범죄수도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남아공의 치안 상황은 1994년 흑인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05년 기준 강도 발

생 건수는 1994년에 비해 무려 89%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아공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40%를 넘는 흑인계층의 높은 실업률, 불법이민자 유입 증가, 치안인력 부족 및 부정부패 만연 때문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치안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아공 정부조차도 이처럼 심각한 치안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경찰청장이 남아공의 치안상황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남아공의 치안상황이 그렇게 걱정되면 남아공을 떠나라는 발언을 해 무리를 빚은 사례와 남아공 국방장관이 치안상황 개선이 정부 정책의 제1순위는 아니다라고 해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사례로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1990년 인종차별 철폐 이후 민생사범, 마약, 차량, 강탈 등을 증가하는 등 남아공의 치안상황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범죄관련 통계(10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양국의 인구는 비슷하나 살인은 우리나라의 약 12.3배, 강도는 우리나라의 약 27배, 강간은 3.7배, 절도는 3.9배 정도이다.

2) 反 외국인 폭동 (Xenophobia) 위험 상존

2008년 5월 중순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흑인 집단거주지에서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등 남아공 인근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폭동이 발생해 더반, 케이프타운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번 폭동으로 인해 5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2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사태의 주요 원인은 남아공 인근 불법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남아공 흑인들의 反 외국인 정서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남아공 흑인계층은 남아공 경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5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절대적인 빈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만이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폭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이러한 反 외국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인력 외에 군병력 투입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2008년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반외국인 폭동의 재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HIV-AIDS 확산

현재 남아공 내 AIDS 환자 및 HIV 보균자 수는 약 6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남아공 전체 인구(약 4,900만 명)의 13%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AIDS 확산에 따라 남아공 국민의 평균 수명은 지난 1990년의 64세에서 현재 53세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에는 평균 수명이 48세까지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 내에서 계속 AIDS가 확산되어 간다면 남아공 인구 증가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인구 증가율 감소는 남아공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 시장 크기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남아공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BRICs 이후 유망 시장으로 선정한 NEXT-11 국가에서 AIDS 확산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를 이유로 남아공을 제외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높은 실업률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은 큰 사회적인 문제이다. 남아공의 경기 호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25.3%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인종 간 실업률 격차가 심한 편인데, 백인 계층의 실업률은 5% 미만인 반면 흑인 계층의 실업률은 40%를 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정체, 인종 간 갈등 확산, 범죄 유발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남아공 정부도 높은 실업률 해소를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대통령실내 '국가계획위원회'와 '이행평가감독위원회'를 두어 정부 정책의 이행과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남아공 FTA

2004년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남아공의 경우 연구기관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우리 측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남아공은 Sub-Saharan 아프리카 전체 GDP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부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로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 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 이와 함께 현재 남아공은 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남아공과의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한-남아공 FTA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체적으로는 대 남아공 수출이 3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공은 1차 산업 분야에서 효과가 크고 전체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11.9%이다.

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0년 FIFA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개최된다. FIFA는 지난 2006년 12월 6일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일정을 확정하였는데,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11일까지 개최된다.

남아공 월드컵 개최도시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케이프타운(Cape Town) 등 9개 도시이며 사용될 경기장은 10개이다.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GDP 증가분)는 약 7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수혜산업은 건설, 통신, 관광산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접적 경제적 효과 외에 남아공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각종 국제경기 개최 여건 제공, 남아공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증가 등 간접적 경제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사회 전분야로 파급되고 있는 노동쟁의 및 남아공 정부의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운영, 고급 기술인력의 해외유출로 인하여 월드컵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 남아공 기술인력 양성정책(JIPSA)

남아공은 1994년 흑인정권 수립 이후 많은 백인 기술자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흑인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재 남아공 내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인력 부족은 남아공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JIPSA(Joint Initiative Priority Skills Acquisi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은퇴/유출 기술인력 복귀, 이민정책을 통한 해외기술인력 유입 등을 통해 남아공 내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동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 차례 지원을 요청하여 온 바, 우리나라로서는 IT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남아공의 JIPSA 정책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 구축

남아공은 백금, 망간, 석탄,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확보처로서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남아공과의 자원외교 강화가 요구된다.

남아공 Sasol사는 석탄 및 천연가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액화기술을 상용화시킨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이러한 액화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 채굴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남아공 Sasol사의 액화설비 플랜트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 남아공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협력

남아공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공급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현재의 발전 용량(약 38,000MW)을 2배로 확충하는 전력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독립발전(IPP) 프로젝트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전력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현지 기술인력 교육지원 등과 같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남아공 전력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양국 협정 체결

- * 이중과세방지협약: 95.7월 서명, 96.1.7 발효
- * 항공협정: 95.7월 서명, 95.7.7 발효
- * 투자보장협정: 95.7월 서명, 97.6.6 발효
- * 남아공국립검정원기능향상사업시행약정: 00.8월 서명, 00.8.14 발효
- * 과학기술협력협정: 04.2월 서명, 04.8.31 발효
- * 원자력협력협정: 10.10월 서명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이다. 2010년 기준,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은 3,558억불로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GDP의 약 25%를 점유 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 약 7,246불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최대규모로서, 아프리카 대외교역의 약 20%를 점유한다.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1.8%)을 시현하였으나, 2010년에는 월드컵 개최 등에 따른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2.8% 성장 하였다.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총생산(U\$억)	2,613	2,861	2,754	2,844	3,558
1인당 국민소득(U\$)	5,455	5,911	5,643	5,643	7,246
GDP 성장률	5.6	5.6	3.6	-1.7	2.8

자료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나. 민간소비

남아공 GDP(지출측면)의 약 63%를 차지하고 남아공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는 2007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 매년 6~7%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민간소비는 2008년 들어 10%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 2006년 6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상, 남아공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법, 세계 금융위기 영향 등에 따라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다. 설비 투자

남아공은 2002년 이후 경기 호조세 지속과 향후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하였다. 2010년 월드컵 개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신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남아공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투자를 진행하면서 남아공 내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상 및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민간부문의 설비 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물가, 금리 및 환율 동향

남아공 소비자물가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였으나, 2003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세가 진정국면에 진입하여 200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남아공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Target Range(3~6%) 내로 안착했다.

그러나 2006년 중반 이후 환율상승,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남아공 중앙은행의 Target Range를 벗어나고 있다. 2008년 8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7%로 최근 10%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남아공 기준금리인 Repo 금리는 12%, Prime 금리는 15.5%이다. 남아공은 물가안정, 설비투자 및 소비확대를 위해 그 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 소비 과열로 인해 2006년도에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2007년 들어서도 금리인상 압력이 지속되어 네 차례(6월 8일, 8월 17일, 10월 12일, 12월 7일)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2008년에도 한 차례 인상되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전망되고 있다.

남아공 환율은 지난 2002년 9월 1달러당 10.50 Rand에서 2006년 초 6.00 수준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란드화 강세의 원인은 미국의 弱 달러 정책,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달러화 유입 증가,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이후 다시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2010년 10월 현재 환율은 1달러당 7란드 수준이다. 남아공 환율은 전형적인 랜덤워크(Random walk)를 따르고 있어 변동폭이 너무 심해, 우리 기업의 對 남아공 투자진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인데, 다만 과도하게 환율이 움직여 외환시장의 변동이 커질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개입등과 같은 미세 조정정책(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바. 실업률

2009년 6월 기준(2009년 9월 말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남아공 공식실업률은 23.6%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약 40%에 이른다.

남아공 공식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7.9%('04.3월) → 26.2%('04.9월) → 26.5%('05.3월) → 26.7%('05.9월) → 25.6%('06.3월) → 25.5%('06.9월) → 25.5%('07.3월) → 23.0%('07.9월) → 23.2%('08.9월) → 24.3%('09.10월) → 25.3%('10.6월)이다. 인종별로는 흑인계층의 실업률이 31.6%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계층은 백인계층으로 4.6%이다.

남아공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5백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NGP: New Growth Path)'을 2010.11 발표한 바, 향후 고용창출 과제가 Zuma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하였다.

남아공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남아공의 실업률은 2분기 기준 2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2분기 동안 총 267,000명이 실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취직 포기자가 상당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광산업: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발전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산업이 발전하였는데, 남아공 GDP의 6.3%, 수출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남아공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 중 생산량 기준 세계 매장량의 광물 중 금은 12.8%, 망간은 24.1%, 크롬은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질석, 바나듐, 프래티늄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전력공급 부족현상 심화에 따라 제한송전이 실시되면서 광산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못해 광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금(Gold), 백금(Platinum),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전세계 광물자원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광업은 남아공 GDP의 9.5%, 40만명의 고용효과, 총수출의 1/3(가공광물(processed minerals) 포함시 1/2) 차지하고 있다. 금, 백금류 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 광물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광산업은 GDP의 3%, 수출의 15%, 20만명 고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남아공 광업 생산량 지수 추이



자료: 남아공 통계청

세계의 90%의 플래티늄, 80%의 망간, 73%의 크롬, 4.5% 바나듐, 4%금을 가지고 있다. 또 비금속과 석탄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원들이 아직도 남아공에는 많이 있다고 한다.

나. 철강 산업: 남아공 최대의 제조업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제조업 생산량의 21% 점유)이다.

그동안 남아공 정부가 2010년 월드컵을 대비한 경기장 건설,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고 건설경기 호조세도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철강 수요가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2008년 1~3월 철강 매출액은 70,766백만 란드로 전 3개월 대비 12.0%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남아공에서 철강을 제일 많이 수요하는 산업은 생산업체로서 2008년 9개월간의 소비량은 2,529,873ton이었으며, 2번째로 많이 수요하는 건설업체의 소비량은 1,220,353ton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프로젝트 추진이 보류되는 등의 사유로 '09년 6월 판매량 기준 '08년 동기대비 -33% 감소하였다.

다. 석유 화학 산업: 남아공 제2의 제조업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약19.6%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1~3월 기간 중 석유화학제품 매출액은 70,482백만 란드로 전 3개월 대비 9.7%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남아공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6월 판매량 기준 전년도 동월대비 약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동차 산업: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 기지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남아공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흑인계층의 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흑인계층의 자동차 구입이 증가하면서 남아공내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 및 금융기관의 대출규제에 따라 신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4분기에는 1분기대비 1,925개의 일자리가 감소, 2008년 한해 2,566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비교하였을 때 2009년 상반기 4,496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자동차 제조 산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 제조 산업 고용 수준은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남아공 판매 변화율

차 종	2009년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	2008년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
승용차	-15.7% (-4.4%)	-32.1% (-30.0%)
LCV	-11.3% (-15.6%)	-45.1% (-39.1%)
MCV	-20.4% (-10.6%)	-50.9% (-41.3%)
HCV	-11.1% (-33.9%)	-55.8% (-44.7%)

출처: 남아공 자동차 제조자 협회(NAAMSA)

남아공 국내 생산 부품업체들은 자금 압박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기업 안정성은 점차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부 아프리카 담당 포드의 마케팅 대표, Jacques Brent에 따르면 시장 상황이 바닥을 치고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NAAMSA(남아공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09년 4월의 승용차 판매량이 43%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8년 7월과 비교했을 때 2009년 7월 승용차 판매량은 25.1%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 3.5% 증가한 수치이다. 자동차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2009년 6월과 비교해 7월 자동차 판매량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진정한 회복은 2010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아프리카 자동차 판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ew cars	241,602	258,259	327,653	419,868	481,568	434,653	329,183	270,000
New LCVs	107,247	107,384	132,405	170,132	199,677	204,386	169,480	145,000
New MCVs, HCVs, and trucks	14,335	16,957	21,464	27,406	33,080	37,059	34,664	330,000
Total domestic sales	363,184	382,600	481,522	617,406	714,325	676,098	533,327	448,000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Research Channel 자동차산업 보고서

2010년 1분기중 남아공 자동차 내수판매가 모든 차종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2010년 들어 남아공 자동차산업은 세계 경기침체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Toyota South Africa Motors(TSAM)는 정규시간 외 작업과 토요일 생산을 중단하고, 정규 시간 내 생산만 추진 하고 있다. TSAM은 일본으로부터의 중요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 2011년4월21일(목)부터 2011년5월 24일(수)까지 2주일간 기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5일부터는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략

- 남아공은 지난 93년 UN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에 적극적인데, 이는 경제제재로 인해 고립되었던 경제 구조를 탈피해 개방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아공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보완수단으로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남부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형성해 FTA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남부 아프리카 총생산 및 교역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남아공은 이러한 역내 경제협력체를 바탕으로 역외국들과의 FTA 추진 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 남부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부아프리카 14개국
-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 1969년에 창설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 등 5개국

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1) FTA 기체결국: EU, EFTA, SACU

- EU와는 지난 1999년 체결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2000. 1월부로 FTA가 발효되었다. EFTA와는 2003년 초에 협상을 시작해 2006년 1월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08년 5월 1일 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 EFTA
 - 1960. 5월에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서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SACU는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관세동맹체(Customs Union)로서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동맹체는 FT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한 단계 높은 형태이다.
 -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 1969년에 창설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 남아공은 2000. 1월부로 EU와 단독으로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EU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GPA가 200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SACU와 EU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 FTA 협상 중인 국가: 미국, MERCOSUR, SADC

- 미국과는 '04.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재권, 서비스교역, 투자 부문에 대한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 현재 SACU에서 미국에 협상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나 협상에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 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는 2004. 12월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동 협정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상 진행 중이다.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과는 2000. 9월 역내 FTA 출범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

였으며, 2008년 FTA 출범, 2010년 관세동맹 창설, 2015년 공동시장, 2016년 화폐 통합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SADC(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 남부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92.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부아프리카 14개국

3) FTA 검토 중인 국가: 인도, 중국

- 인도와의 FTA 협상은 2005년 9월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최근 인도 정부에서 FTA가 아닌 특혜무역협정(PTA)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 중국은 현재 FTA 타당성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 FTA 체결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10년 남아공의 수출액은 8만525백만 달러로 '09년 대비 26.8%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 소비 증가에 따른 제조업 경기 호조세, 란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단가 감소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금, 백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도 남아공의 수입액은 8만444백만 달러로서 '09년 대비 23.1% 증가하였다.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극복과, 민간소비 확대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 및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고유가 기조에 따른 원유 도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남아공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45,972	51,870	57,897	69,867	80,207	62,380	85,253
수입	47,652	55,029	68,157	79,923	91,058	64,867	84,449
무역수지	-1,680	-3,159	-10,260	-10,056	10,851	-2,487	-0.804

자료: 남아공 관세청

남아공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독일, 미국, 사우디, 일본 등이다. 국별 수출입 금액은 무역통계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 (특히 남부아프리카)들의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기준 최대 수출국과 수입국은 모두 중국이다.

남아공의 수출 품목은 주로 광물자원이다. 이는 남아공 내에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졌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광물자원으로는 플래티넘, 금,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이 외에 자동차 수출액도 수출금액 기준 6위

품목인데, 이는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MIDP)에 따라 토요타, 벤츠,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남아공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일찍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이다. 특히 최근 들어 남아공 흑인계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액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이후 남아공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됨과 동시에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20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전반적 수요감소로 인하여 6월 기준 남아공 수입액과 수출액이 각각 33.96%, 30.33% 감소하였다.

남아공 주요 수출입 품목

순위	수출 품목	금액(백만 달러)	비중(%)	수입 품목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플래티넘	6,905	14.20	원유	10,454	16.10
2	금	6,427	10.30	수출반품품목	3,563	5.49
3	석탄	4,255	6.82	석유제품	2,526	3.90
4	승용차	3,200	5.13	승용차	2,438	3.76
5	철광석	3,086	4.95	무선통신기	2,203	3.40
6	페리엘로이	2,918	4.68	의약품	1,238	1.91
7	원심분리기	1,685	2.70	컴퓨터	1,213	1.87
8	다이아몬드	1,328	2.13	자동차 부품	967	1.49
9	원유	1,216	1.95	잉크	763	1.18
10	알루미늄	1,047	1.68	항공기	624	0.96

자료: 남아공 관세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8년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30%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출실적은 한-남아공 교역 개시 이후 최대 감소 규모이다. 대 남아공 수출액이 급감한 이유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주력수출품인 휴대폰(28%), 자동차(35%), 가전제품, 경유,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8년 대 남아공 수출액은 21.5 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2% 증가하였는데, 이는 망간광(418%), 유연탄(114%) 등 남아공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남아공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5월)
수 출	530	959	1,319	1,794	1,753	1,397	1,082	640
수 입	782	999	1,094	1,385	1,766	2,159	1,171	785
무역수지	-252	-40	225	409	-13	-369	-89	-14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8년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핸드폰과 승용차가 큰 폭의 수출감소율을 나타냈다. 핸드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하여 157백만불의 수출에 그쳤고 승용차(1500cc 초과 3000cc 미만)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11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승용차(1000cc 초과 15000cc 미만)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45백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대 남아공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1	승용차	398	535	566	315	339
2	무선전화기	301	245	233	173	151
3	합성수지	56	58	109	98	56
4	기타석유화학제품	14	22	25	42	35
5	종이제품	27	25	42	47	34
6	철강판	20	23	33	39	31
7	자동차 부품	13	19	25	23	23
8	고무 제품	19	15	18	18	21
9	건설 광산 기계	41	55	70	81	21
10	냉장고	36	41	38	22	20

주: 2010년 3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 자료 (2009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MIT 3단위)

2008년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수입액은 2,15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의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망간, 유연탄, 백금, 동괴 등의 수입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입 규모는 지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수입 품목은 거의 대부분 광물자원으로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 대상국이다.

대 남아공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1	합금철선철 및고철	291	306	295	467	205
2	금은 및 백금	140	512	699	608	193
3	철광	68	94	167	185	141
4	동제품	96	185	164	171	137
5	알루미늄	153	101	129	199	123
6	기타 금속광물	24	29	42	184	72
7	석탄	N/A	29	21	45	65
8	철강판	127	22	33	58	32
9	자동차	0	0	0	19	25
10	기호식품	36	65	54	41	18

주: 2010년 3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 자료 (2009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MIT 3단위)

2009 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겠지만, 2010 년 5 월 현재 대 남아공 수출은 저년 대비 75.3% 증가, 수입은 138.2% 증가하며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다시 증가 하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제한 품목

남아공 정부는 국민 보건, 환경 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다.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국내산업 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 美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06)

남아공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세계 7대 자동차 메이커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WTO 규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MIDP)”을 시행 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르면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 시 관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 일부 품목은 남아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수입 제한 품목은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에 문의하면 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선적 2주 전에 ITA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이면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면허는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나. 비관세 장벽

남아공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 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아공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 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한 신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신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생산업체의 ‘과세대상자 확인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수입된 직물의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돼 있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모든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 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아직 경험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수입쿼터제도

남아공 정부는 WTO의 자유무역주의에 적극 부흥하여 수입쿼터를 상당부분 해제했으나 섬유산업 등 고용규모가 큰 전통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TO 섬유쿼터 해제 이후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으로 인해 남아공 내 섬유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남아공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국산 섬유제품 31개 품목군에 대해 수입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쿼터 대상 품목 중 중국에서만 생산되거나 남아공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수입 물량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이 외에 중고 기계류,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등 중고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자본재 관세율 인하

최근 남아공 정부는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기계류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아공 관계당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0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3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세이프 가드 규제를 받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1), 화학(2), 제지(1) 등이다.

한국업체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명시적 수입규제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국내유통업체의 HS 품목 세분류를 문제 삼아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현상을 보임. (LG TV, 타타대우 덤프트럭)

2009. 5월 말 기준, 남아공으로부터 수입 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는 품목은 총 5개인데, 품목별로는 철강(2), 화학(2), 제지(1) 등이며, 규제 형태는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이다.

남아공의 대한 수입 규제 내역

품목(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반덤핑	'00.10	'02.3	'09.2 재심판정	한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스페인 * 반덤핑 관세율: 79.76% * '07.8.28 종료예정 * KIS Wire(무형의), DSR제강 * '08.08.17 일몰재심 잠정결과 발표
폴리에틸렌수지용기 (PET) (3907.60)	반덤핑	'05.4	'05.10 (19.7%)	'06.2 (19.7%)	한국, 인도, 대만 * 반덤핑 관세율: 19.7% * 대상 업체: SK케미컬, 고함, 휴비스 * 5년간 관세부과
백상지 (4810.92)	반덤핑	'05.8	'06.2 (38.0%)	'06.12 (23.0%)	한국 * '06.2.24 잠정 관세율: 38% * '06. 12월 최종 판결: 관세율 23.0% *대상업체: 한솔제지, 대한펄프
Lysine (2309.90, 2922.41)	세이프가드	'07.5	'07.5 (160%)	'07.12 (9%)	일부 개도국은 예외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 대상업체: Lysine 제품생산·수출업체 일부 개도국 제외 관세부과 종료(11.28)

주: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 무역관 자체 작성

5. 관세제도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던 시절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약 15%에 달하던 비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현재 약 8% 수준까지 인하됐다.

남아공 관세율 현황

품 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40.8%	9.0%
비농산물	15.7%	7.9%
전체	19.1%	8.0%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기준 32.0%까지 인하됐으며, 2007년까지 매년 2%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12년에는 15.0%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꾸준히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본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수입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나가고 있다. 다만 섬유류 등과 같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남아공의 관세 구조는 크게 MFN 관세, EU 관세, Efta 관세, SADC(남부아프리카 개발위원회) 관세 등 4가지로 나뉘어지며, 남아공 관세율은 관세청 (http://www.sars.gov.za/tariffs/Loose_Leaf/ltbookmainsch1.pdf)에서 검색 가능하다.

6. 주요인증제도

남아공이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 인증 등의 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89개로 분류했으며, 품목 수로는 5,000여 개 이상이다. 주요 품목군을 살펴보면, 첫째 화학·생명공학 제품군으로 식품, 의약품,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둘째는 전기·전자 제품군이며, 셋째는 섬유제품군, 넷째는 기계·운송 제품 등이다.

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ABS(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BS의 홈페이지는 www.sabs.co.za이며, 연락처는 27-12-428-7911이다.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 변형 식품과 농축산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에 “유전자 변형 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이 제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 이처럼 남아공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1년도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차원의 생명공학발전 전략을 수립해 생명공학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이미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재배된 콩의 유통을 승인한 바 있다.
- 남아공은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7. 지적재산권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적재산권 수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 s Amendment Act), Trade Marks Act, Copy Right Act, Merchandise Marks Act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가. 남아공 주요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개요

1) 모범(국제 협약)

Paris Convention (1883~1967), Arrangement of Lisbon (1958),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

2) 기본 법령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38 of 1997, Counterfeit Goods Act of 37 of 1997, Patent Amendment Act 58 of 2002, Copyright Act 97 of 1978 등 11 개 법령

3) 특허권

특허권은 20년간 적용되는데, 특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66란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특허권이 발급된 지 3년 이후부터는 매년 60란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상표권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다. 상표권 신청 수수료는 266란드이며, 매년 갱신을 위해 121란드를 지불해야 한다.

5) 저작권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이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주요 분야는 문학,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방송 등이며,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231란드이다.

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남아공은 이처럼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선진국 수준에 와있지만 법 집행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로 남아공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아직 WIPO 저작권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남아공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따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적판 소프트웨어 구입자에 대한 처벌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남아공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회사등록청(www.cipro.co.za)인데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남아공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액은 총 128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소프트웨어협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남아공에서의 미국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37%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91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 대학교재의 불법복제, 위조 의약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아공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도에 모조품 단속법을 더욱 강화해 단속원 확충, 모조품 수거 창고 확대, 세관원·국경 경찰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남아공 정부의 노력에 따라 2003년도에 14건에 불과하던 해적판 DVD 및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자 검거실적이 2004년도에는 100건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06년도 남아공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검거 실적은 2005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남아공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아공 국세청에 등록하여 세관번호(Customs Code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하루 정도면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시간과 관련하여 남아공 정부는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4시간,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영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 Commercial Invoice
- Certificate of rules of origin(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 Bill of lading
- Rebate Permit(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Payment, by a bank guaranteed cheque, for all applicable duties and taxes

또한 상품의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며 아울러 수량과 품질, 그밖에 작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HS시스템에 의한 관세분류 번호도 제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품은 별도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통관서류 준비 시 사전에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작성해야 한다.

- 동물
 - 산 동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당국의 확인을 받은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일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 식품
 - 일반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관청의 통제를 받는다. 보존품의 경우에는 상품 표시 및 포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음료수
 -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는 Soft Drinks Regulations를, 알코올 음료의 경우에는 Wine, Other Fermented Beverages and Spirits Act의 적용을 받는다.

- 화장품 및 소독제
 -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를 적용 받는다.
- 의약품
 - 남아공의 Medical Control Council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다.
- 화학물질
 - Hazardous Substances Act의 적용을 받으며 살충제의 경우에는 남아공 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한 라벨 링 규정 적용을 받는다.
- 전기 기기류
 - 남아공은 전기기기제품에 대해서는 반입 충족시켜야 하는 안전규정이 있다.

그밖에 Weight Measures Act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종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상품의 표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단위의 포장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수입상은 수입상품 도착 1주 전까지 해당 세관에 문서로 도착신고(Bill of Entry)를 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상품을 지정보세창고에 예치하고 관련비용을 산출한다. 상품이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당국은 그 상품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고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나 통상 수입화물의 50% 정도를 육안 검사하며 일부 랜덤으로 X-Ray 검사를 한다. 최근 남아공 물동량 증가로 인해 항구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통관기간에 장시간이 걸려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

나. 운송

남아공 전체로는 약 20여 개의 공항이 있으며, 10개 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더반 공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프타운과 더반 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국제선이 많지 않아 남아공을 방문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기타 주요 공항으로는 블룸폰테인, 이스트런던, 킴벌리, 포트엘리자베스, 조오지 그리고 오펜톤 등 공항 등이 있다. 현재 2010년 월드컵 대비 공항 시설 개선 관련 투자가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다.

남아공의 물동량은 국영기업으로 출범한 South African Marine Corporation(Safmarine)사가 컨테이너, 일반화물 그리고 광산물수출을 위한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남북아메리카, 아시아(한국, 홍콩, 타이완)지역으로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남아공에는 6개의 주요 항구가 있는데 Durban, Richards Bay, Cape Town, Sal-danha Bay, Port Elizabeth, East London이 그것이다. 항구별 특색을 보면 더반항은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케이프타운은 과일, 포도주 및 채소류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살다나 베이는 자연항구로 원광석 수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유일하게 강변에 위치한 항구인 East London은 Eastern Cape 주의 버팔로 강가에 자리잡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입 전문항구이다. 또한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고 잠비아 및 자이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구리수출을 위한 주력 항구로 이용되고 있다.

더반항은 남아공 최대의 항구이면서 연간 1,200만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며 남아공 하루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반항은 적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물동량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최근 불법 수입 단속강화에 따른 억류 컨테이너의 증가, 인력부족 등 세관행정의 비효율성 등에도 기인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물동량 처리능력 확대를 위해 더반 항구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회사명	설립연도	종업원 수	전화번호	홈페이지
XPS Service	n/a	700명	(27-11) 961-3000	www.xps.co.za
United Parcel Service	1997	150명	(27-11) 922-9200	www.ups.com
Speed Courier Service	1991	n/a	(27-11) 961-3036	www.speedservice.co.za
Skynet Worldwide Express	1930	400명	(27-11) 571-4500	www.crossroads.co.za
Millwnnium Express Couriers	1996	120명	(27-11) 392-3813	n/a
Globefflight Worldwide Express	1998	245명	(27-31) 263-1334	www.globefflight.co.za
OCS Worldwide	1957	60명	(27-11) 929-9600	www.ocs.co.za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남아공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2,500 달러 수준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30~45일이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며, 흑인계층 소득향상, 2010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많은 경제성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아공의 흑인계층 소득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아공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안정적이다. UNCTAD는 최근 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 남아공을 선정한 바 있다.

남아공은 금, 플래티넘, 망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유망 투자 대상국이다.

남아공 주요 광물자원 현황

광 물 명	매장량	순위	생산량	순위
크롬(Chromeore)	5,500Mt	1	7,405Kt	1
금(Gold)	36,000t	1	373t	1
망간(Manganese)	4,400Mt	1	3,501Kt	1
바나듐(Vanadium)	12,000Kt	1	27Kt	1
플래티넘(Platinum-group metal)	70,000t	2	266,150Kg	1
우라늄(Uranium)	298Kt	4	758t	10

자료: Department of Minerals & Energy – South Africa's Mineral Industry

남아공은 높은 경제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남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국가이다. 유럽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EU, Efta 등 유럽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유럽 지역 우회 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중 전력, 도로, 통신, 항만, 금융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국가이다.

남아공은 전체 아프리카 전력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항구,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남아공 내 7개 항구는 연간 1만3,000대의 선박과 약 1.9억 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

남아공은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 해소, 기술 이전 등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과거 10년 동안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 및 규제를 모두 철폐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남아공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제한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에는 Registrar of Deposit-Taking Institution의 승인이 필요하며, 49%를 초과하게 되면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방송 분야는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20%로 제한되어 있다.

남아공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납부 100% 본국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남아공 비거주자들의 지분이 75% 이상이고(or가 아닌 and 조건) 남아공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다.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

남아공은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IMF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Targeting)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 남아공의 2000~2008년 중 환율변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 시중은행의 Prime Rate는 현재 12%로 자금 차입비용이 상당히 높다.

남아공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노조가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다. 남아공 내 유흥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인력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인건비 또한 동남아 및 동구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남아공 제조업 평균 인건비는 약 970달러이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서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투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남아공의 외국기업 투자동향

남아공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5년도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약 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0%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급증한 이유는 영국 Barclays 은행의 남아공 ABSA 은행 인수, 영국 이동통신 기업인 Vodafone의 남아공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Vodacom에 대한 지분 확대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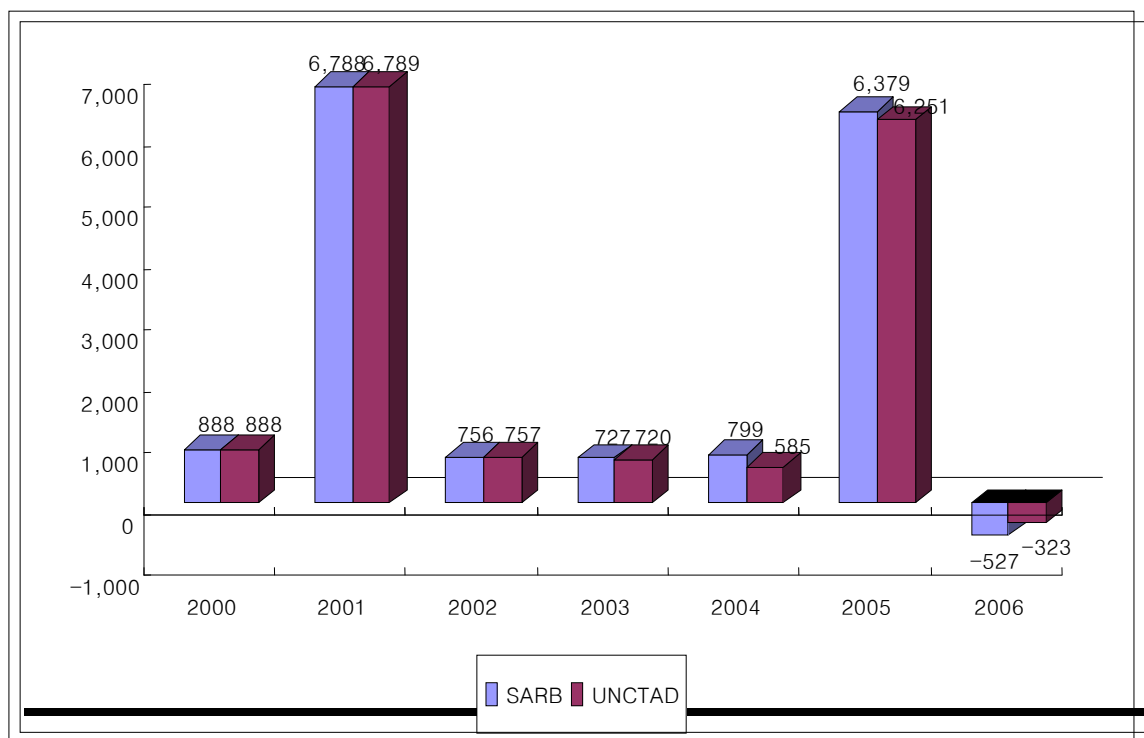
Barclays 은행의 ABSA 은행 인수비용인 50억 달러가 2005년 3/4분기 남아공으로 유입 되었기 때문에 남아공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급증할 수 있었다.

남아공에는 이처럼 기업인수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급증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1997년 남아공 국영 통신 기업인 Telkom 지분의 일부 민영화, 2001년의 영국계 기업인 Anglo American plc와 De Beers의 합병 등이 그것이다.

2006년 기준 남아공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567백만 란드(-52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6,379백만 달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모 회사에 대한 이익 송금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UNCTAD와 남아공 중앙은행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어, 두 기관의 통계치를 모두 표시

자료: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08, 587 page, South Africa Reserve Bank(SARB)

(2009년 9월 9일 현재 입수가 가능한 데이터 기준)

나. 주요 외국 투자 기업

대 남아공 투자 기업 현황

업종	기업명	국적	US\$백만	투자연도
Pharmaceuticals & Healthcare	Merck & Co Inc	USA	3	2005
Autos	Volvo AB	Sweden	7.13	2005
Pharmaceuticals & Healthcare	Merck & Co Inc	USA	2.99	2005
Autos	Toyota Motor Corporation	Japan	392.2	2005
Autos	Volkswagen AG	Germany	120.3	2005~2007
Autos	Volkswagen AG	Germany	50.15	2005~2007
Autos	Bridgestone Corporation	Japan	107	2004
Oil & Gas	Tullow Oil plc	United Kingdom		2004
Autos	General Motors	USA	47.5	2004
Autos	Fiat SpA	Italy	15.2	2004~2007
Insurance	Old Mutual plc	United Kingdom	272	
Food and Beverages	Nestle SA	Switzerland		2004
Defence	Saab AB	Sweden		2003~2004
Mining	Anglo American plc	United Kingdom/South Africa	547	2003
Pharmaceuticals & Healthcare	Eli Lilly	USA	20	
Chemicals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	Japan		2003
IT/Computers	Sage Group plc	United Kingdom	110.25	2003
Defence	Saab AB	Sweden		2003
Banking/Finance	Barclays Bank plc	United Kingdom		2003
Banking/Finance	Standard Chartered plc	United Kingdom		2003
Banking/Finance	Barclays Bank plc	United Kingdom	61	2003
Financial Services	De La Rue plc		5.4	
Banking/Finance	Standard Chartered plc	United Kingdom	30	
Consumer Goods	L'Oreal	France	17.9	2003~2008
Manufacturing	Anglo American plc	United Kingdom/South Africa	220	
Autos	Visteon Corporation	USA		2003
Food and Beverages	Nestle SA	Switzerland	15.8	
Autos	Renault	France	11.3	
Autos	Renault	France	9.8	2002
Mining	BHP Billiton Ltd	Australia/United Kingdom		
Oil & Gas	PETRONAS - Petrolam Nasional Bhd	Malaysia		
Steel	Acerinox SA	Spain	231	2002
Infrastructure	Lafarge	France		
Autos	BMW Bayerische Motoren Werke AG	Germany	190.9	2002
Autos	Toyota Motor Corporation	Japan	98.12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oche Ltd	Switzerland		2002
Manufacturing	Bridgestone Corporation	Japan	14.85	2002
Oil & Gas	BHP Billiton Ltd	Australia/United Kingdom		2002
Oil & Gas	Total SA	France/Belgium		2002~2003
Manufacturing	Pechiney SA	France	1600	
Food and Beverages	Altria Group	USA	5600	2002
Defence	BAE Systems	United Kingdom	37.22	2002
Freight Transport	Crown Worldwide Holdings Ltd	Hong Kong		2002
Mining	Anglo American plc	United Kingdom/South Africa	365	2002
Mining	BHP Billiton Ltd	Australia/United Kingdom	449	2002~2004
Autos	Bridgestone Corporation	Japan	9.85	2002~2004
Autos	PSA Peugeot Citroen	France		2002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다. 지역별 투자동향

남아공의 채권시장은 Repo중심.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보유 비중은 23%(2008년 9월)이었는데 글로벌 신용위기 및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이탈되어 2009년 3월말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보유 비중은 23% 수준이다. 장의 시장거래 비중은 2008년 9월 20%에서 2009년 3월에 14%로 하락하였다.

대 남아공 직접투자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EU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별 투자 유치 입수 가능 최신 통계는 2006년 말 기준 자료이다.

EU 국가 중 남아공에 대한 직접 투자액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2006년 말 기준 누적 투자액이 44만257백만 란드에 달한다. 영국 다음으로는 독일(3만4,121백만 란드), 네덜란드(2만2,106백만 란드), 스위스(1만2,263 백만 란드), 프랑스(9,157백만 란드) 등이다. 비 EU 국가 중에서는 미국의 투자액이 가장 많은데 2006년 말 기준 누적 투자액이 3만 7,378 백만란드에 달하고 있다.

대 남아공 투자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란드)

국 가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 드	일본	스위스	프랑 스	말련	짐바브 웨
금 액	440,257	33,378	34,121	22,106	14,72587	12,263	9,157	2,407	2,138

주: 2006년 12월 말 기준 누적투자액(2009년 9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자료: 남아공 중앙은행,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08, 587 page

라. 업종별 투자동향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업이 가장 많고 광산업, 제조업 순이다.

대 남아공 투자 상위 10개 업종

(단위: 백만 란드)

산 업	광산업	제조업	금융업	도소매	운송	건설	농수산	전력	기타
금 액	250,361	165,432	162,521	16,172	13,809	1,983	888	29	527

주: 2006년 12월 말 기준 누적투자액(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자료)

자료: 남아공 중앙은행,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08, 587 page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지난 95년 만델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체결되었으나 투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남아공의 대 한국 투자는 거의 없으며 한국 대기업들이 남아공에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대 한국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남아공은 소수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현상이 심한데 이들 대기업은 대부분 광산분야의 기업이고 경공업이나 기타 공산품 제조산업의 발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겨냥한 공산품 진출 여지가 거의 없는 데 기인하고 있다.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20개사 내외로 이중 삼성전자, LG전자, 트래피스, 태성유화, 영상산업, SJM 등이 현지법인 형태로 투자 진출해 있고 금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차, 대우, 삼성물산, 제본 등은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대한전선, 사만코르(Posco 현지 합작 법인)는 합작투자 법인으로 진출해 있다.

이 외에 개인 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기업들이 남아공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고 진출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의 소규모 자본을 이용, 현지에서 가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2009년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투자 누계액은 약 1.68억 달러인데, 투자 금액 기준으로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57위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남아공의 직접 투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투자 진출 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신 고		투 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8	6	41,299	2	41,296
1999	1	11,298	2	11,482
2000	5	11,699	4	10,858
2001	0	3,884	0	3,779
2002	1	664	1	161
2003	1	450	1	196
2004	1	800	1	123
2005	9	27,126	8	26,697
2006	2	6,226	4	5,983
2007	9	30,135	9	29,397
2008	7	28,207	13	21,942
2009	3	825	6	94
2010	0	0	3	375

주: 2010년 8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 자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업종별 대 남아공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86백만 달러) 및 제조업(31백만 달러)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투자액의 98.4%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 남아공 10대 투자기업은 아래 표와 같다.

대 남아공 10대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연번	기업 명	업종	취급 품목	신고 일자	투자 금액	비 고
1	삼성전자	도소매업	가전제품	1995.4.24	33,857	
2	대우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	1995.7.13	18,255	철수
3	대한전선	제조업	통신케이블	2000.8.24	14,100	
4	신나코리아	제조업	신 발	1990.11.9	2,845	미확인
5	에스제이엠	제조업	자동차부품	1997.7.29	2,249	
6	LG 전자	도소매업	가전제품	1996.9.10	407	
7	사인코미네랄	광업	광 물	1999.10.13	322	미확인
8	오성아이엔씨	서비스업	과속단속기	2000.8.31	240	
9	에스아이티	제조업	PC	2003.5.7	201	미확인
10	정진완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2002.8.2	161	미확인

자료: 재정경제부, 자체조사

- 한편 남아공 내 한국 지상사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다.
 - 대기업: 금호타이어,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두산인프라코어, 제일기획, LG 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 중소기업: 대한전선, 제본, 세라젬, 태성유화, 트래피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남아공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과 같은 투자법령이 없으며, 외국 기업은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이 깊은 남아공 내 법령은 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Law), 노동법(Labour Law),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회사법(Company Act)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Company Act와 Close Corporation Act가 적용되는데 구성원이 최대 1명인 Close Corp 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개념으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소규모의 사진관, 식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Close Corporation Act가 적용된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Company Act의 적용을 받고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Local Company로 등록하는 방안이 있는데 Local Company는 다시 Public Company와 Private Company로 구분된다. 회사설립은 Register of Companies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남아공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다만, 남아공의 경우 BEE 육성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BEE 기업 및 현지 관련 협회와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아공에 투자하는 기업은 모두 독립 회계법인 중 하나를 회계 감사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회계법인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모든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 내에 현지 회사(Locally incorporated Company)가 아닌 지점 형태의 회사(External Company)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아공 회사법 제32조에 따라 지점 설립 후 21일 이내에 등록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항은 공기업 및 사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만약 수출입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다면 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나. 투자 장려 및 제한 분야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고용 창출 규모가 큰 중후장대형 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아공 내 기술 기반이 부족한 IT 산업의 투자 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남아공에는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투자가 가능하다. 은행과 방송 분야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rar of Deposit-Taking Institution의 승인이 필요하며 49%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방송 분야의 외국인 지분 소유는 20%로 제한되어 있다.

다. 투자 인센티브

남아공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아래 5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광범위 투자(Broad Investment in South Africa)
-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기술혁신(Innovation and Technology)
- 수출경쟁력 제고(Competitiveness and export capabilities)
-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s)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건 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면제는 없으며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된다. 금융지원은 남아공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 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1) 산업개발지대 인센티브

남아공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 IDZ)』를 운영하고 있다. IDZ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 면세혜택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IDZ 운영 주무부처는 남아공 상무부이며, IDZ 입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IDZ는 특정 산업(예: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단지가 아닌 전반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 단지이다.

IDZ는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을 운영해 입주 기업에게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남아공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IDZ는 4개이며 소재 지역은 Port Elizabeth, East London, Richards Bay, Johannesburg 등인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남아공 산업개발지대(IDZ) 현황

IDZ	소재지	주력 분야
Coega IDZ	Port Elizabeth	전자, 자동차, 섬유, 중공업
East London IDZ	East London	자동차, 섬유, 의약품
Richards Bay IDZ	Richards Bay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
JIA IDZ	Johannesburg	귀금속 제조 및 식음료 가공

2)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CIP)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핵심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제공되는데,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남아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등이며, 지원대상은 사회 인프라 건설 관련 직접비, 인건비, 소요자재, 신규 자본재 구입 등이다.

3)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or Industry Programme(THRIP)

남아공내 인력 및 기술개발을 위해 남아공 정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과학 기술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 남아공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NRF와 공동 출자하여 과학 기술분야 연구가 가능하다.

동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아공 정부(NRF)와 외투기업의 출자 비율은 1:2 이어야 한다.

4) Support Programme for Industrial Innovation(SPII)

외투기업에 의한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을 통해 남아공 제조업 및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 주로 신제품 개발 또는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가 끝난 단계부터 시제품(Pre-production Prototype) 완성 단계까지 지원되는데, 아래 3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Product process development

소규모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비용의 65~85% 까지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프로젝트 당 R 50만(U\$ 71,400)이다. 지원비용은 해당 기업의 흑인지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세부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다.

- 흑인 지분 비율 25% 미만: 65%
- 흑인 지분 비율 25~50%: 75%
- 흑인 지분 비율 50% 이상: 85%

□ Matching Scheme

종업원 200명 이상, 매출액 730만 달러, 자산 규모 27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데 추후 상환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프로젝트 당 R 150만(21만4,000달러)이다.

□ Partnership Scheme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최소 지원액은 프로젝트 당 R150만(21만4,000달러)이다. 지원금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었을 경우에 한해 상환한다.

5) Film Incentive

남아공 영화 및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 남아공 내 영화 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게도 해당된다. 동 인센티브는 남아공 국립영화영상재단(National Film and Video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세금 리베이트인데 남아공 내에서 영화, 다큐멘터리 및 방송 드라마 제작에 R 25백만(3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세금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최대 리베이트 금액은 R10백만(143만 달러)이며, 현재 동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위해 2005/2006 회계연도에 R 25.6백만(366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다.

6)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EMIA)

남아공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을 위해 투입된 각종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 시장조사, 시장개척단, 수출 상담회, 전시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여행 경비 및 마케팅 자료 제작 비용을 보조해 주며, 수출 상품 생산에 투입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7)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MIDP)

남아공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 SACU 회원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부품 중 완성차 가격(공장도 가격 기준)의 27%까지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수출되는 자동차 수출액에 따라 완성차(승용 및 상용)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남아공 내 신규 자동차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구분

1) 주식회사

-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로 구분됨
-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상장회사 (Public Company), 비상장회사 (Private Company)로 구분됨
- 상장회사는 최소 7 명 이상의 주주/ 2 명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며, 비상장회사는 최대 50 명의 주주/ 최소 1 명의 이사가 필요함

2) 개인기업

- 가장 간단한 독립사업형태로서 법인 등록이 필요치 않음
-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자산과 소유주 자산의 구분이 없고,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소유주의 부담이 큰 단점이 있음.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 남아공에서는 외국인들도 자유로이 부동산, 주식 등 남아공 내의 자산을 구입할 수 있음
-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비 회사 법적에 따라 회사법 (Companies Act) 혹은 동족 회사법 (Close Corporation Act)이 적용되며, 이는 남아공 회사등록청 (CIPRO,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에 의해 총괄관리 됨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 (Company), Section 21 Companies, 외국회사 (Local Branch of Foreign Company), 동족회사 (Close Corporation), 합자, 합명회사 (jointly with others in partnership), 단독사업체 (individually as a sole proprietor), 위탁업체 (Business Trust), 신탁회사 (The Trust) 가 있음.

2) 주식회사 (Company)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 대부분의 등록형태
- 현재 남아공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계 지점들은 비상장회사는 일반에 주식 또는 채권공모를 못 하며, 주식양도에 제한 있음

3) Section 21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Associations Not For Gain)

- Section 21 Companies 는 자선단체와 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특수 형태 회사
- 회사법 (Companies Act)의 Section 21 조항에 의회 관리됨
- 일반적으로 기금 혹은 외국인투자기금에 의해 운영됨
- 주로 종교기관 및 비 정부단체 (NGO), 기금마련기구, AIDS 예방기구 등의 설립형태임
- 최소 7명 이상의 주주 / 2명 이상의 이사 필요

4) 외국회사 / 지점 (Local Branch of a foreign company)

- 남아공에서 은행과 보험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떤 외국회사라도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 지점으로 등록되기 위해선 남아공에 사무실 개설 이후 21 일 이내에 남아공 회사등록청 (CIPRO)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실을 설치한 후 남아공 거주인 1 인을 전달인으로 임명해야 함
- 모든 외국회사는 남아공 국세청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 15 만 란드 이상), 종업원의 세금(원천징수방식)등을 신고해야 함

5) 동족회사 (Close Corporation)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형태
- 동족회사법 (Close Corporation)에 의해 관리됨
- 소규모 사업자에게 회사법(Companies Act)의 복잡한 적용조건을 완화해주면서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음
- 최대 10명 이내 소유해야 하며 직접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에 적합함
- 세금 및 외환관리상의 불이익이 있어 외국인투자 형태로는 부적합할 수 있음
- 동족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회계사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6) 합자, 합명회사 (Partnership)

- 채무 및 의무에 대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는 합명회사와 참가자 일방(무한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타방(유한책임)은 자본참여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합자회사가 있으며, 이는 모두 회사법(Company Act)에 의해 관리됨
- 남아공국세청(SARS)에 의해 검토된 재무제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등록절차 혹은 법적인 보고 요건 없음
- 회사간 파트너십에 의한 합자,합명회사는 비즈니스레터, 카탈로그 등에 파트너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Business Name Act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 파트너십 회사는 다음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구성원은 파트너십에 동의해야 함
 - 구성원 각각은 회사 이윤 창출에 기여 해야 함
 - 파트너십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며, 창출된 이윤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7) 신탁회사 (The Trust)

- 신탁회사는 유한회사에 한하여 설립될 수 있음
- 그 어떤 수익자나 수탁자들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갖지 않음
- 신탁자산관리법 (Trust Property Control Act)에 의해 관리됨
- 남아공 대법원에 예치된 신탁증명서로 회사설립 이루어 짐

다. 투자주체별

1) 단독 투자

- 남아공에 단독투자는 가능하나, 기업설립, 경영, 판매, 고객관리 등 투자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큼. 남아공의 경우 흑인경제 육성정책 때문에 외국기업의 예를 볼 때 큰 어려움은 흑인계층을 우대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 및 공동 입찰 수주가 불가능 하게 됨

2) 합작 투자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비율(스폰서쉽)
 - 남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흑인경제 육성법 (BEE)로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여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됨

- 남아공기업들은 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므로 전혀 BEE 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 남아공 기업 중 BEE 이행도가 높은 업체와 합작 투자를 한다면 남아공에서의 영업유지 및 확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1) 선호형태 및 사유

- 현재 남아공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계 지점들이 사용하는 비상장 회사 형태를 사용 많이 함
 - 기업 자산과 소유주 자산의 구별이 뚜렷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소유주의 부담이 한정 되어있음
- 소규모 사업자/투자자에게는 설립하기 쉽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동족회사 설립을 추천
 - 복잡한 법적 적용요건은 간단하게 하며,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

2) 외국인에게 어려운 형태

- 외국인이 사실상 이용 할 수 없는 형태
 - 남아공에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투자/진출 형태가 없음, 종종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많은데 사실상 불가능 하면 지점형태로 진출해야 됨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주식회사

구분	설립조건	설립절차	준비자료	제출처	비용	기간
상장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 최소 7 명 이상 / 2 명 이상의 이사 -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 (자본을 주식 시장에서 조달)	- 회사명제출 - 외부회계사 지정 - 서류 서면 제출 - 서류심사 및 승인	- 연차재무제표 - CM27 서류 (Consent to act as director or officer and other Directorship) - 주식자본 분배 현황 - 주식보유자 위임장 - 최고 책임자 및 직원 정보 - CM5, CM22 등록된 회사명, 주소 - 회계연도종료일 - 회사감사의 이름 및 주소, 서명된 CM31 서류 (Notice of Appointment of Auditor) - 회사의 주된 영업 - 활동내역 및 목적	회사등록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R500 (등록청납부)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의 0.5% (부가세) R9000 (2001 년 기준)	약 1~2 주일
비상장회사 (Private Company, Proprietary Limited)	- 최대 50 명의 주주/최소 1 명의 이사 -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법인 (자본을 주주가 개별 조달)	- Public company 상동	상장회사와는 다르게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음	회사등록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Public company 상동	약 1~2 주일

나) Section 21 회사 조건 및 설립절차

조건	설립절차	준비자료	제출처
최소 7 명 이상의 주주 / 2 명 이상 의 이사	- 회사명 제출 - 서류 서면 제출 - 서류심사 및 승인	The Memorandum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제출서류 - CM5 application for reservation of name - CM22 notification of situation of registered and postal address - CM29 Return containing particulars of directors officer - CM31 notice of appointment of auditor - CM49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회사등록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3) 외국회사 설립절차 및 준비자료

설립절차	준비자료	제출처	비용	소요기간
- 회사등록서류양식에 관련정보를 기재 - 전문서비스업체나 변호사에 위임할 경우 위임장 작성 - 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승인	- CM27,37 서류 - 회사정관, 회사명 - 연차제무제표 (회사자본금액) - 회계연도종료일 - 남아공 내 영업 활동보고서 및 모회사의 재무제표 - 사무실 소재 주소 및 우편주소 - CM47(each director)서류 - CM37(in duplicate)서류	회사 등록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 R500 (등록청납부)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 0.5% (부가세) - R4500	약 1 주일

4) 동족회사

조건	설립절차	준비자료	제출처	비용	소요기간
최대 10 명의 구성원	- 회사명제출 - 외부회계사 지정 후 서류서면 제출 - 서류심사 및 승인	- Founding Statement application - CK1(설립신고), CK7(기업등록) 서류	회사 등록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 R500 (등록청 납부) +Authorized Share Capital 금액 0.5% (부가세) - R3000 (2001 년 기준)	약 1 주일

5) 합자, 합병회사 설립절차 및 준비자료

조건	설립절차	준비자료
최소 2 인, 최대 20 명의 구성원 (전문직조합은 제외)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구체적인 형식 없음 - 연차재무제표 - 합작협정(Partnership Agreement) - Act on Business Names

※ 정보는 회사등록청인 CIPRO (www.cipro.co.za)에서 찾아볼 수 있음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1) 법무 법인

- 프레토리아 한인 변호사
 - 주소 : Pretoria
 - 전화 번호 : +27 12 430 2833
 - 핸드폰 번호 : +27 82 473 0934
 - 이메일 : Joshua520@hanmail.net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 서광옥
- C G Griffith Registrations CC
 - 주소 : Norwood Johannesburg
 - 전화 번호 : +27 11 728 2027
 - 핸드폰 번호 : +27 83 679 2503
 - Website : www.registercc.co.za
 - 이메일 : glen@registercc.co.za
- DJ Meyer & Co.
 - 주소 : 6 Eleventh Ave Northmead, Benoni, Gauteng 1501
 - 전화 번호 : +27 11 425 2691
 - Fax : +27 11 425 3003
 - 이메일 : stephany@djmeyer.net

2) 회계 법인

- Ernst & Young
 - 주소 : Wanderers Office Park, 52 Corlett Drive, Illovo
 - 전화번호 : +27 11 772 3000
 - Website : www.ey.com/za
 -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 PriceWaterHouseCoopers
 - 주소 : 2Eglin Road, Sunninghill 2157
 - 전화 번호 : +27 11 797 4000
 - Fax : +27 11 209 5800
 - Website : www.pwc.com/za
 - Auditors, Accountants, Tax Advisers, Business Advisers
- Grant Thornton
 - 주소 : 137 Daisy Street, Sandown
 - 전화번호 : +27 11 322 4500
 - Website : www.gt.co.za
 - 이메일 : info@gt.co.za
- Ash M.D. & Co.
 - 주소 : 12 Dunrobin Street, Sydenham
 - 전화번호 : +27 11 485 1076
 - Fax : +27 11 485 1429

- 담당자 : Michael Ash
- 이메일 : Michael@mdash.co.za

6.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 개발 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 IDZ)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IDZ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 면세혜택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IDZ 운영 주무부처는 남아공 상무부이며, IDZ 입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IDZ는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 운영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남아공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 등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서 승인된 IDZ는 4개인데, Port Elizabeth, East London, Richards Bay, Johannesburg 등에 위치하고 있다.

나. 특별경제구역 세부 정보

1) Coega IDZ

남아공 Eastern Cape 주의 Port Elizabeth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1,000ha에 달한다. 2002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2005년 5월에 첫 업체가 입주했다. 동 IDZ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이며, 남아공 내 4개 IDZ 중 전력, 통신,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동 IDZ의 주력 분야는 전자, 자동차, 섬유, 중공업 분야이며 이 외에도 금속, 화학, 에너지 분야의 제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연락처 및 웹사이트
 - 전화: +27 41 408 4800
 - 담당자: Mr. Luvuyo Dambuza)
 - 웹사이트: www.coega.co.za

2) East London IDZ

남아공 Eastern Cape 주의 East London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약 1,500 ha이다. 2003년도에 남아공 정부로부터 IDZ 운영 허가권을 받았으며, 2005년 7월에 첫 업체가 입주했고, 동 IDZ 운영기관은 East London IDZ(Pty)이다. 주력 분야는 자동차, 섬유, 의약품 등이다.

- 연락처 및 웹사이트
 - 전화: +27 43 727 1447
 - 웹사이트: www.elidz.co.za

3) Richards Bay IDZ

남아공 KwaZulu-Natal주의 Richards Bay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370ha에 달한다. 동 IDZ 운영 주체는 Richards Bay IDZ Company(Pty)이며, 주력 분야는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산업 위주이다.

- 연락처 및 웹사이트
 - 전화: +27 35 789 3400
 - 웹사이트: www.richardsbayidz.co.za

4) OR Thambo International IDZ – 구 JIA(Johannesburg International Airport) IDZ

남아공 Gauteng 주 정부의 Blue IQ 프로젝트(Gauteng 주의 종합적인 경제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요하네스버그 국제 공항 인근인 Kempton Park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며, IDZ 주변 도로만 완성된 상태로서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준비 단계이다. JIA IDZ 개발 및 운영기관은 Blue IQ Investment Holdings(Pty)이며 귀금속 제조 및 식음료 가공 산업에 특화될 예정이다.

- 연락처 및 웹사이트
 - 전화: +27 11 689 1600
 - 웹사이트: www.blueiq.co.za

산업 개발 지대 (IDZ)

*산업 개발 지대 (Industrial Development Zone : IDZ)



7. 노무관리

가. 노동 정책

1996년 헌법에 명문화 된 인권법(Bill of Rights)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결사의 자유, 공정한 노동관행, 단체 협상, 태업,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Manpower Training Act(1981)는 노동부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정책의 법률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기능은 실업자들로 하여금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위한 기회 증대를 위한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다.

1997년 새롭게 규정된 the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는 노동시간(초과근로 포함), 휴가·병가·출산 휴가, 임금, 근로계약 해지, 고용주에 대한 행정적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동 규정의 예외로 임금계약이나 개별 합의 등을 통해 상기 조항의 적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산업재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The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ct가 1996년에 발효되어 보상위원회가 설립되고 보상기금이 마련되어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나. 근로 시간

근로시간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40시간을 목적으로 하는 주당 4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로 시에는 하루 9시간, 주 6일 근로 시에는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루 초과가능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리자, 여행자, 일주일에 4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초과근무

계약서상 초과근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는 금지되어 있다. 초과 근무를 한 고용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근무수당의 1.5배를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시간만큼 단축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라. 휴가

근로자는 21일(Working Day 기준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집안에 출산이 있거나 자녀의 질병 또는 친척 사망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3일까지 유급 가족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2일 이상 휴가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퇴직금

계약기간 종료, 고용인의 사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여 1년당 최소 일주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바. 질병 및 출산

근로자는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총 6주 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지급률을(일례로 6주간 시는 100%, 7.5주간 시는 75%등)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또한 최소 4개월의 무급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Labour Relations Act에 의거 출산휴가 중 고용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 해고

해고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6개월 이하: 1주
- 6개월 이상: 2주
- 1년 이상: 4주

이 외에 특별 규정으로 농장 근로자와 가사 노동자의 경우에 최초 4주가 지난 이후에는 1개월 간의 해고 통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합의나 임금 계약을 통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합의가 가능하기도 하다.

아. 고용주 의무

동 법은 고용주의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서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 공제 및 근로 시간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근로장에는 근로자의 법률적 권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이나 가사 노동자들과 같이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다.

The Labour Relations Act가 1996년 발효되었는데, 동법은 파업할 수 있는 권리와 산업별로 기업별 협상 장려, 불공정 해고와 정보 차단에 대한 규제 등을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자 포럼과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The Employment Equity Bill이 1997년 제정되어 모든 고용주(5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는 그들의 정책이나 관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있으며 법을 지키는 고용주는 정부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나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동법은 모든 기업체로 하여금 사내 근로자 현황을 준비해 두도록 하고, 현행 고용 관행과 정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고용 평등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매년 노동부에 그들의 실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 노동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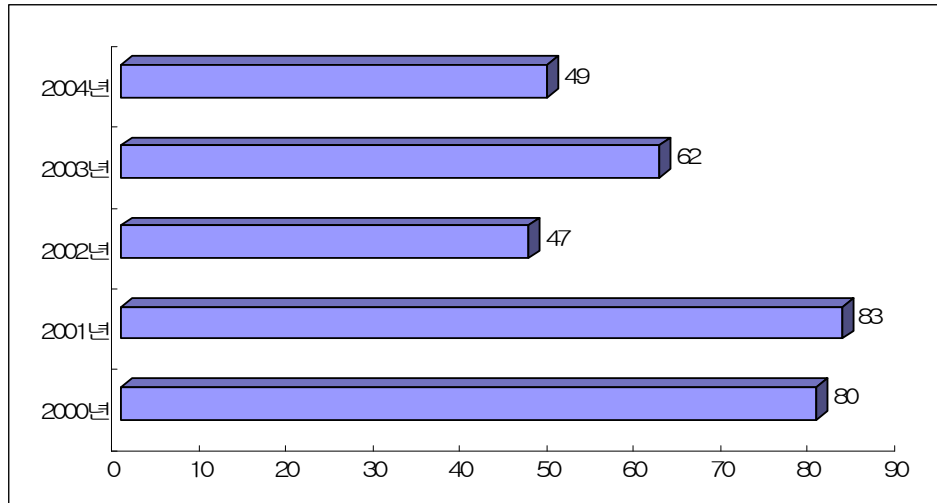
노동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CCMA(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또는 Bargaining Council을 통해 화해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사 간 화해를 위해

우선 30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Council이나 CCMA의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는 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출두할 수 있고 증인이나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중재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중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차. 노동관련 통계

연도별 노동 분쟁(파업) 통계

(단위: 건수)



자료: 남아공 노동부

* 2005년/2006년/2007년/2008년 통계자료의 경우 남아공 정부에서 미공개

연도별-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Rand)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광산업	6,513	7,233	7,487	7,437	10,450
제조업	6,388	7,054	7,161	7,087	8,067
전력/수자원	14,768	15,041	14,399	15,114	18,549
건설업	4,279	4,640	5,126	5,219	5,963
도소매	5,034	5,132	5,466	5,411	6,269
통신/운송	10,180	11,095	10,709	10,788	11,562
금융/부동산	6,724	7,962	9,407	9,255	10,144
개인 서비스업	8,681	8,686	9,295	9,206	10,799
전 체	6,887	7,412	7,924	7,862	9,502

주 1: 상여금 및 야근 수당을 모두 포함한 명목 임금 기준

주 2: 1U\$ = 약 8.36 Rand

주 3: 2009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자료: 남아공 통계청

8. 조세제도

가. 개요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가 조세징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1997년의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에 근거하고 있다. SARS는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남아공의 조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또한 외부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다. 남아공의 주된 세원은 기업 및 개인에 부과되는 직·간접세와 관세 및 물품세와 같은 기타 세금으로 구분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남아공은 한국을 비롯한 50개 국가들과 이중 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나. 개인 소득세

남아공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18%이며, 최고 세율은 40%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R 11 만 2,500인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R 450,001인 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65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 43,000, 65세이상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 69,000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소득세율표

(기간: 2008.3.1~2009.2.28)

Taxable Income (R)	Rates of Tax (R)
0-122,000	18% of each R1
122,001-195,000	21,960+25% of the amount above 122,000
195,001-270,000	40,210+30% of the amount above 195,000
270,001-380,000	62,710+ 35% of the amount above 270,000
380,001-490,000	101,210+38% of the amount above 380,000
490,001 and above	143,010+ 40% of the amount above 490,000

자료: 남아공 국세청

다. 법인세

남아공 현지 법인의 법인세율은 29%이며, 과세 대상금액이 R 46,001~30만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10%, R 4만6,000 이하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남아공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33%의 법인세 부과된다.

법인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 (Secondary Tax on Companies)의 세율은 과거 12.5%에서 2007. 10. 1일부로 10% 로 인하 되었다. 남아공 정부는 보다 많은 법인 이익금이 기술연구 및 설비증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당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 부과표

(기간: 2008.4.1~2009.3.31)

Type	Rate of Tax
Companies	28%
Small business corporations	
- R0-R46,000	0%
- R46001-R300000	10%
- R300001 and above	28%
- Employment companies	33%
- Foreign resident companies which earn income from a source in South Africa	33%
- Secondary tax on companies (STC) on dividends after being reduced by dividends receivable during a dividend cycle (South African branches of foreign resident companies are exempt from STC)	10%

자료: 남아공 국세청

라. 관세 및 특소세(Excise Duty)

관세는 수입 상품에 대하여, 특소세는 담배, 술, 화장품, TV, 오디오, 자동차 등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특소세는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부과되고 있다. 특소세 부과 대상 품목은 남아공 국세청(www.sars.gov.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993년 4월 이후 14%로 조정되었으며, 다수의 필수 재화에 대하여 면제된다. 부가세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단계에서만 아니라 상품 및 일부 서비스의 수입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 공급 시에 부과된다. 1996년 10월부터는 생명 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연금 각출금, 퇴직금, 의료보조금 등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남아공의 외환관리는 The Currency & Exchange Act 및 The Exchange Control Regulations에 근거, 중앙 은행의 외환관리부(EXCON)에서 재무부를 대신해 모든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1961년도에 자본도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외환통제제도는 그간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를 담고 있다.

외환거래는 공인달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일반인들은 이들 달러를 통해 외환을 사고 팔 수 있으며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수출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취득한 외환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달러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수출대금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EXCON의 승인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CFC Account로 불리는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주식투자는 제한이 없으나 과실송금이나 배당소득의 송금을 위해서는 비거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송금된 자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데 5만 란드 이상 남아공으로 송금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

수입대금의 경우에는 수입자유화 품목 또는 수입허가를 기 취득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외화지불이 가능하나, 기술 도입 로열티, 특허 사용료 등의 지불은 EXCON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도 8~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 여행 시 1년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 운영하고 있는데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5만 란드, 성인 1인당 16만 란드까지 허용하고 있다.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의 상환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약 2~3주간 소요된다. 배당금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승인이 필요 없다.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 가능하다.

7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아공 기업은 남아공 대부기업들로부터 차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100% 외국인 지분 소유기업은 유효자본금(납입자본금, 우선주, 미배당이익,

주주들의 해외로부터 의 차입금, 핵심주주들의 거래신용 등) 이내로 차입이 제한된다. 5만 란드 이상을 국외로 보내려는 기업은 Form A를 작성, 자본의 출처 등을 밝혀야 한다.

국내 제조기업과는 관계없는 로열티, 라이선스 및 특허료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사전 준비은행의 승인을 요한다. 제조업과 관련된 로열티 등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밖에 관리비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경상계정지불은 판매액, 이익, 구매액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서와 함께 공인 달러를 통하여 지불할 수 있다.

외환 자유화 조치에 의해 개인차원에서는 총액이 75만 란드까지 별도의 Charge 없이 반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 내의 투자의 경우 20억 란드, 아프리카 이외 국가의 경우 10억 란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남아공 법인의 해외 차입도 허용될 예정인데 총 자산의 일정비율에 대해 해외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과거 유엔 경제 제재 조치 기간 중 익숙해진 남아공의 폐쇄적인 비즈니스 행태는 국제 사회에 문호를 개방(1994년)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행하고 있다.

한 번 정해진 기존 거래선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을 변경하지 않으며 모든 분야에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발달해 있고 각 유통 단계별로 외상 신용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다.

유엔 경제 제재 조치 기간 중 시장 규모가 작은 남아공 시장에서만 경쟁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여러 업체가 수입,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없었으며 독점 에이전트가 단독 수입, 자신의 유통 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고, 자신의 유통 라인에게는 여타 물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90~120일 정도의 외상 신용거래를 일반화시켰던 것이다.

이 같은 비즈니스 행태는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90~120일에 해당하는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수출업자에게 D/A 거래나 USANCE L/C 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백인들의 경우 L/C 거래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거래 시 L/C거래를 고집할 경우 여전히 계약 성사확률이 낮은 편이다.

각 유통 단계별로 20~25% 정도의 높은 유통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유럽 수준의 A/S가 발달해 제품 품질 보증 기간 1년은 보편적이다.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물품 교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중·고급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남아공 시장은 크게 3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경제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와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내륙지역이며, 두 번째는 남아공 최대항구인 더반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지역, 세 번째는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상권이다.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금광이 많으며 제반 무역업, 제조업이 발달했고, 더반 지역은 섬유산업 및 운송산업이 발달했다. 케이프타운 지역은 수산업, 섬유산업, 관광업 등이 발달했고 최근 섬유산업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포트엘리자베스 지역은 자동차 조립공장 및 관련 산업이 발달했다.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시기인 70~8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인 경제봉쇄를 당하면서 유통산업이 일부 대형유통체인을 중심으로 소비재 및 생필품 등의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유통마진이 높고 간접비용이 매우 높은 비효율적 구조를 형성해 왔다.

불과 5~6개에 불과한 대형유통체인들이 전국 소비재유통의 60~70%를 장악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개방화와 흑인경제권이 태동하면서 중간유통단계의 도입 등 유통망의 다양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슈퍼마켓이 발달해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Woolworths, Makro, Checkers, Edgar, Pick'n Pay 등은 일괄구매 및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약 60만여 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 외 가전제품, 의류, 신발, 육류, 과일류, 주류 등 전문상품 소매상이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슈퍼마켓에 비해 훨씬 작다. 또한 지역별로 대단위 쇼핑센터가 구축되어 동 센터 내에 슈퍼마켓, 특판점, 전문상품 취급 소매상들이 입주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들 쇼핑센터 내에서 생활용품 및 기타 소비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남아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제품의 가격대비 높은 품질 수준이 남아공 소비자들에게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공은 2010년 월드컵 개최 준비, 주택 보급확대 등에 힘입어 건축경기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 건설장비가 유망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남아공의 IT시장도 그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IT 제품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공에는 수많은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전체 인구(약 4,785만 명)의 79.7%는 흑인이며, 백인은 9.0%, 혼혈 8.8%, 아시아계 2.5%이다.

흑인계층은 실업률이 높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백인들은 유럽수준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중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부유층인 백인계층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상자로서 흑인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남아공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흑인계층은 흑인 정부 집권 이후, 정부 및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신흥 부유층이 탄생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는 빈곤층이다.

흑인, 백인 다음으로 최대 인종인 인도인들은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현재 장관 및 정치인들을 배출해 현지에 동화되어 있다.

백인들은 고급, 고가품을 선호하며 유럽산 수입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흑인들은 저소득층으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자가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남아공 최대 항구인 더반을 중심으로 주로 섬유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인도인들은 중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신흥 흑인 부유층의 등장으로 인해 중고가 한국 제품 시장이 경쟁력 있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말 현재 남아공의 흑인 중산층은 약 27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매년 50%씩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 물가정보

(2011년 6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US \$)
식품류	쌀 1kg	\$ 2.40
	계란 12개	\$ 4.40
	쇠고기 등심 1kg	\$ 12.00
	돼지고기 등심 1kg	\$ 12.00
	우유 1L	\$ 1.76
	식용류 1L	\$ 1.77
	생수 1L	\$ 1.40
	맥주 (하이나켄 335ml, 6팩)	\$ 5.8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 4.1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버거 세트)	\$ 5.58
	김치찌개 1인분	\$ 13.33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 5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 42.66
	병원진료비 (의료보험O, 몸살감기 내과초진)	\$ 33.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 46666
	무연휘발유 1L	\$ 1.52
	자동차 등록비	\$ 73.0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 208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 1.32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
	시내버스 기본요금	\$ 1.33
	택시 기본요금 (Sandton에서 O.R Tambo 공항까지)	\$ 60.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 0.39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 1.02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 0.25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 3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8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 17151
	외국인학교 중등1년 수업료 (중상급)	\$ 20106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 22302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 355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 199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 2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 45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 38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4개월
	연간 국경일수	12일
	주 5일 근무 여부	주5일근무
기타	드라이클리닝 (정장 1벌 기준)	\$ 27

3. 바이어 발굴

가. 협회 정보

남아공에서 바이어를 발굴하려면, 비즈니스 및 산업 관련 협회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아공 상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Business SouthAfrica (BSA) 회원사/기관	전화번호	웹사이트
Agri South Africa	(012) 465-6910	www.agrisouthafrica.com
The AHI	(012) 348-5440	www.ahi.co.za
The Banking Associate South Africa	(011) 645-6700	www.banking.org.za
Building Industries Federation of South Africa	(011) 315-1010	www.bifsa.org.za
Chamber of Mines of South Africa	(011) 498-7100	www.bullion.org.za
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 Association	(011) 482-1671	www.caia.co.za
Foundation for African Business and Consumer Services (Fabcos)	(011) 333-3701	www.fabcos.co.za
Insurance Industry Employer Association	(011) 884-8903	www.ieea.org.za
Life Offices Association	(021) 423-2233	www.loa.co.za
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of South Africa	(012) 323-2980	www.naamsa.co.za
Printing Industries Federation of South Africa	(011) 794-3810	www.pifsa.org
Retailers' Association	(011) 408-0408	www.fuelretailers.co.za
South African Chamber of Business	(011) 446-3800	www.sacob.co.za
South African Federation of Civil Engineering Contractors	(011) 315-1010 / 2212	www.bifsa.org.za
South African Foundation	(011) 356-4650	www.safoundation.co.za
South African Insurance Association	(011) 726-5381	www.sainsurance.co.za
South African Petroleum Industry Association (SAPIA)	(021) 419-8054	www.sapia.org
Steel and Engineering Industries Federation of South Africa	(011) 833-6033	www.seifsa.co.za
South Africa Sugar Association	(031) 508-700	www.sasa.org.za

나. 전시회 정보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도 효과적인 수단인데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매년 발간되는 전시회 디렉터리를 구입하면 된다. 전시회 디렉터리는 “Exhibition Association of South Africa”에서 구입 가능하며 매년 7월경에 발간되는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exsa.co.za)를 참조하면 된다. 남아공의 주요 전시회 주최기관은 Terrapinn, Kagiso 등이다.

다.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남아공은 아직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해 온라인에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남아공 상무부: www.dti.gov.za
- 남아공 상공회의소: www.chamsa.gov.za
- 요하네스버그 상공회의소: www.jcci.co.za

이 외에 각종 DB 등을 활용해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데, 현재 남아공에서 발간되는 유력 바이어 DB는 아래와 같다.

- EZee-Dex: www.edx.co.za
- Commercial Directory: www.brabys.co.za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남아공 IT 시장 바이어 및 협력업체 발굴과 관련해서는 남아공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발행되는 “Top ICTE Companies”라는 자료를 참조하면 좋은데, 약 33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오랜 기간 동안 흑백 차별을 극복하고 인종 평등 시대를 연 남아공은 인종 차별에 대한 언급은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 과거 집권층이었던 백인 계층은 인종 차별이 무너진 이후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흑인 계층은 흑백 차별이 없어진 이후에도 경제 적 차별은 여전하여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 백인 집권 시기를 찬양하거나 현 흑인 정부의 문제점을 과거 백인 정부와 비교하여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남아공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남아공에는 인도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인도인들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어 종교적 언급도 삼가야 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남아공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은 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흑인 정부 집권 이후 흑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흑인 비즈니스맨이라고 알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BLACK EMPOWERMENT라는 제도가 있어 흑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특별 우대를 해주고 있어 흑인 바이어 중에 큰 바이어가 있을 수 있다.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 여성들도 폭 넓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1) 약속

남아공 비즈니스맨들 중 백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교적 시간 관념이 철저한 편이다. 백인 비즈니스맨들과 약속을 잡을 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 흑인 비즈니스맨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약속 시간보다 20~30분 이상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전화를 해보면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거나 몸이 아파 나갈 수 없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흑인 비즈니스맨들과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 식사

남아공 비즈니스맨들과 식사를 할 경우에는 양식 또는 일식을 추천하고 싶다. 남아공 식사 문화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육류가 주된 음식이다. 이 외에 해산물도 즐겨 먹으므로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무난하다.

양식 외에 일식도 추천할 만 한데, 남아공에는 일식이 상당히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남아공 바이어들을 일식당으로 초대할 경우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남아공에는 인도계 비즈니스맨들이 많은데, 이들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계 비즈니스맨들은 무슬림이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식사 장소와 메뉴를 정하는 것이 좋다.

3) 선물

남아공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해소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고가의 선물 제공을 제공하기보다는 간단한 성의만 표시할 수 있는 소액 선물이 무난하다.

일반 비즈니스맨들과의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물을 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액 선물이 좋다. 남아공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인삼(홍)차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명함 수첩 등이 적당하다.

4) 인사

인사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남성의 비즈니스맨과 인사를 나눌 때는 가볍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면 되고, 여성의 경우는 간단한 인사말만 하면 된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흑인 비즈니스맨들을 만난다면 인사말을 할 때 영어보다는 그 흑인이 속해 있는 종족의 언어로 인사를 한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남아공 흑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를 무난하게 구사하지만 자기 종족의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면 매우 좋아한다.

5) 복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담 시에 정장을 입지만 남아공 바이어들은 정장보다는 편안한 복장을 입고 나타난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양복 정장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캐주얼 정장을 추천하고 싶다.

다. 상담 시 유의 사항

남아공 바이어들은 첫 상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여러 공급업체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고 거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첫 대면을 통한 상담 이후에 충분한 교신이 이루어진 후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인종이 남아공에 살고 있으며 특히 섬유산업은 인도계 상인들이 더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상권을 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급을 삼가야 하며, 이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첫 대면 시에는 남아공의 좋은 점, 예를 들면 기후 등에 대한 찬사를 하고 백인 바이어인 경우 치안 불안의 문제점, 흑인 바이어인 경우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 등을 표현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라. 계약 체결 유의 사항

유럽식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어 소량 다품종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남아공 내에서 조달 가능한 제품은 가능한 남아공 내에서 조달하고 여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0~120일 정도의 D/A 거래나 USANCE L/C 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액 주문인 경우 L/C 개설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해 T/T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수입가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수출가격 책정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D/A거래에 따른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수출보증보험 부보 등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남아공에도 나이지리아처럼 국제사기조직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사기극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업체도 이 같은 사기극에 속아 남아공까지 방문하여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사기 유형은 아프리카 다른 국가에서 가지고 나온 고액을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비밀리 가지고 나온 현금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구입비가 필요하다 등의 형태에서, 투자파트너로서 거래를 제의한다든가 정부의 대규모 입찰을 문의하는 형태 등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든 피해자를 남아공으로 오게끔 유인한 후 현지에도착하면 강도로 돌변하여 휴대 중인 현금을 빼앗고 때로는 한국에 전화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위조 송금증을 가지고 샘플 등 소량물품을 사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레터를 가장 손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주의해서 보면 된다. 연락처가 정식 전화 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전화번호가 82,72,73,84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구리, 철광석 등 자원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수법은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외국 업체를 속여 대금을 가로채거나 약속한 광물 대신 돌덩이 등을 보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원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턱없이 낮지 않은지를 우선 살펴봐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보내오는 증명서 등 제반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남아공에서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중고 레일 판매 관련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아공 내에 중고 레일 판매 위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인데,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남아공 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중고 레일 판매 계획도 없을뿐더러 사기업체들이 증빙서류로 보여주고 있는 위임장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불안한 치안상황

남아공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황이다. 남아공의 상업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는 세계적인 범죄 수도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남아공의 치안 상황은 1994 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남아공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40%가 넘는 흑인 계층의 높은 실업률,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 치안 인력 부족 및 부정 부패 만연 때문이다. 이러한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8 년 5 월 들어서는 反 외국인 폭동이 발생한 만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높은 HIV-AIDS 감염률 - 노동 인력 감소

AIDS 확산도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다. 현재 남아공 내 AIDS 환자 및 HIV 보균자 수는 약 620 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남아공 전체 인구(약 4,700 만 명)의 13%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AIDS 확산에 따라 남아공 국민의 평균 수명은 지난 1990 년 64 세에서 현재 53 세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 년에는 평균 수명이 48 세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 내에서 계속 AIDS 가 확산되어 간다면 남아공 인구 증가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인구 증가율 감소는 남아공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 시장크기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남아공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BRICs 이후 유망 시장으로 선정한 NEXT-11 국가에서 AIDS 확산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를 이유로 남아공을 제외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부족한 기술인력- 숙련 노동력 부족

남아공 내 부족한 기술 인력도 남아공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이다. 흑인 정권 출범 이후 백인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현재 남아공은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아공 내 기술 인력의 평균 연령은 54 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된 기술인력 및 은퇴 기술인력 복귀,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확대, 해외 기술 인력 유입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관료주의 만연 및 부정 부패, 무책임하고 느린 흑인 근로자

남아공 공무원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관료주의와 부정 부패도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남아공 공무원들은 상당히 관료적인데, 이로 인해 관공서를 통한 일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업체들이 많다. 관공서를 통해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느린 편이다. 불필요한 서류도 많으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있다.

남아공 내에서 흑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애를 먹는 기업들도 많다. 일단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며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는 데다 지시하는 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흑인들의 오랜 습성인지 모르겠으나 매사에 일 처리가 느리며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다.

과거 백인들이 세워놓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은 잘 되어 있으나 흑인 정권 출범 이후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주체가 된 흑인들의 경험 및 교육 부족으로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 않아 빠른 업무 처리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이 적잖이 애를 먹고 있다.

마. 경직된 노동 시장 및 강성 노조

남아공 정부는 23.6%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고용 안정을 위해 해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은 노조 활동이 활발하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 노사 문제가 항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1: 남아공 정부 입찰 시장 진출

M사는 국내 D기업이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인수한 현지 자회사이다. 주요 생산 제품은 광케이블, 알루미늄 컨덕터, 동선, 전력 케이블 등이다.

현재 M사는 남아공 전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M사가 남아공에 진출하기 전까지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은 Aberdare社와 ATC社가 돌아가며 납품을 하는 사실상의 독점 시장이었다. 이는 남아공의 UN 경제 제재 기간 동안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M사는 지난 2001년에 남아공 국영 통신기업인 Telkom이 발주한 광케이블 공급입찰에 참가, 25만 Fiber Km를 2004년까지 3,500만 달러에 납품하기로 낙찰을 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그 동안의 우수한 품질 및 납기 기한 준수를 인정받아 공급계약을 3년간 연장하여 동 기간 중 100만 Fiber Km를 1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남아공은 흑인기업 가산점이라는 독특한 정부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기업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D사는 이러한 흑인기업 가산점을 십분 활용, 현지 흑인기업(M사)을 설립해 우리 기업 최초로 남아공 정부입찰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M사가 입찰에 성공한 요인은 첫째 선진 제조공법(VAD 공법) 도입을 통한 제품 차별화였다. M사는 기존 납품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선진 제조공법(VAD 공법)으로 생산한 고품질 광케이블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고품질 광케이블로 인해 입찰 단가는 경쟁업체 대비 3%나 높았지만, 최신 공법 도입에 따라 품질 점수를 높게 받았고 제품 보증기간을 15년으로 제시함으로써 높은 기능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흑인기업 우대정책(BEE)을 잘 활용한 것이었다. 남아공 정부는 흑인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 입찰 시에 흑인 기업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D사는 이러한 남아공 정부 입찰 제도를 활용, M사 인수 과정에서부터 회사 지분의 일부를 흑인에게 양도해 입찰 참여 시에 흑인기업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신뢰 확보였다. 입찰 발주처인 Eskom은 M사의 15년 장기 제품보증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M사의 본사인 국내 D사가 품질 및 납기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입찰 낙찰 후 3간에 걸친 공급 기간 동안 적기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를 한층 더 확보하였다. 이는 공급 계약 연장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 성공 사례: 남아공 소형 화물 트럭 시장 석권

국내 자동차 회사인 H사는 대형차 위주의 남아공 화물차량 시장에 남아공 최초로 1.3톤 규모의 소형 화물차를 출시함으로써 틈새시장 마케팅을 전개하여 현재 남아공 내 소형 화물차 부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소형 화물차 시장에 대한 남아공 소비자들의 숨겨진 수요를 끌어내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 실패 사례: MOU 체결 이후가 더 중요

국내 기업 A사는 복합 통신 단말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지 유력 업체와 MOU까지 체결하였다. 이후 양사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국내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지 업체는 국내 업체로부터 MOU에 따라 협의된 첫 번째 단계인 수출가격에 대한 자료를 MOU 체결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통보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업체는 한창 제품개발 중이므로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양사 간에 체결된 MOU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정부등록 및 비자취득

- 사업목적(남아공 내 사업체 설립 및 기존 사업체에 투자)으로 30일 이상 남아공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참고: 사업 목적을 위한 남아공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 가능함)
 - 신청서
 - 사진 1장(35mm x 45mm)
 - 여권
 - 신청 수수료
 - 건강진단서, 방사선 검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경찰신원조회서
 - 공인회계사 인증서류
 -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및 투자증빙 서류,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사업의 특성상 법적으로 특정 기관 및 단체에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
 - 남아공 국세청(SARS)의 세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준수한다는 약속서

- 귀국보증금 예치
- 황열병 예방접종서(한국에서 직접 출발하는 경우는 불필요)

(자료: 주한 남아공 대사관)

- 남아공에 이민 또는 영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신청인별 사진 2장(35mm x 45mm)
 - 여권
 - 신청 수수료
 - 건강진단서, 방사선 검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엑스선 검사
 - 경찰신원조회서
 - 부모 중 1명만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양 부모의 동의서
 - 남아공에 취업 또는 학업을 계획하는 경우 최고 학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타: 재정 증명서류

(자료: 주한 남아공 대사관)

나. 주택

1) 매입

남아공은 넓은 토지면적과 저렴한 건설비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상업의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 북부 신 개발지역의 새로 지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약 100평의 건물에 650평의 대지면적을 가진 단독주택의 경우 약 200만~300만 란드면 살 수 있다. 약간 외곽지역의 10년 정도 된 중급 수준의 건평 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만 란드 내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남아공 내 경기호조 및 주택보급 정책에 따라 남아공 부동산 가격이 2007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경기 호조세 둔화 및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앞으로 경기 둔화세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불안에 따라 금리인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주택 경기는 다소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임차

남아공은 증가하는 범죄율 때문에 집을 구할 경우에는 방범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다수의 주택이 공동의 경비원을 두는 공동주택(Town House, Cluster)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 대중적 일간지인 The Star지의 Classified 섹션 부분의 주택임대차 광고를 통하여 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 에이전트의 광고가 대부분일 만큼 에이전트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수수료는 임대인만 임차료 1개월 분의 수수료를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통상 1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갱신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치나 방법 상태 등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양하고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초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현지에 먼저 정착한 사람 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 세 개가 있는 규모의 집은 치안이 확보된 지역의 경우 1만8,000 란드 정도면 구할 수 있지만 그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약 10%씩 임차료가 인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리인상과 물가급등에 따라 주택 임차료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치안이 확보된 지역의 3 베드룸의 경우 월 임차료가 2만 란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차 시에는 임차료 1개월 분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며 계약 만기시 각종 기물 파손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손상된 기물만큼 공제한 후 환불 받게 된다.

다. 은행구좌 개설

은행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소속 회사명의로의 신원보증서가(레터 형식) 필요하다. 남아공 은행들은 당좌구좌의 경우에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원금손실이 크기 때문에 구좌 선택 시 종류별로 신중히 비교한 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좌구좌가 개설되면 은행은 구좌 개설인에게 수표책을 발행해 주지만 개인용 수표는 일반적으로 신원이 서로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통용이 잘 되지 않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은행 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현금인출용 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를 선택하면 된다. 남아공의 4대 은행은 Amalgamated Banks of South Africa (ABSA), Standard Bank, First National Bank(FNB) 그리고 Nedbank 등이다.

라. 전화신청

남아공은 전화사정이 열악한데다 행정처리가 대단히 늦기 때문에 전화신청 후 통상 1~2개월이 지나서 전화가설이 되면 다행일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처리 속도가 많이 개선 되어 신청 후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전화신청은 해당지역 전화국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200란드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현재 3개 회사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독점 체제인 유선전화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아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개통이 될 수 있다. 통상 휴대폰 계약 기간은 24개월 이며 휴대폰 기기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PRE-PAID 폰의 경우 단말기와 통화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금액만큼 입력시켜서 사용하는데, 신원보증 등 복잡한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단말기 구입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자동차 구입

남아공에서의 모든 활동은 개인 자가용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 가격은 높은 관세와 세금 때문에 단순 비교로 우리나라 차 값의 2배 이상이 될 만큼 비싸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딜러가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결정하고 구입 가격을 지불한 후 자동차를 인수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문광고, 중고자동차 딜러, 경매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신문광고를 통한 직접매매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 이후 자동차검사 및 등록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이때 검사 및 등록수수료는 약 550란드(약 10만원)가 소요 된다.

바. 교육

남아공은 학제는 7-5-3 제인데 즉, 국민학교 7 년, 중·고등학교 5 년, 대학 3~4 년(전문대 2~3 년)이다. 남아공 국립 학교는 영어 이외 현지 공용어(Afrikaans, 흑인어) 사용과 현지인 우선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입학이 어렵다. Int'l School 은 요하네스버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레토리아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하여 school bus 를 운행하고 있다.

외국기업 자녀들의 경우는 대부분 Int'l School 에 다니고 있는데, 입학은 T/O 가 있을 경우 수시 입학 가능하며, 입학 전 영어 혹은 수학 test 후 입학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 비치 입학신청서, 여권 사본 등인데 일부 학교의 경우 재학 중이던 학교의 입학 전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남아공에는 유치원도 있어 취학 전 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으며, 토요 한글학교가 Johannesburg 와 Pretoria 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시간은 09:00~12:00(3 시간)이다.

남아공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주재국의 대입수능시험(Matric, 전국 일제히 실시)에 합격해야 한다.

사. 병원

남아공의 병원은 크게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백인과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립병원을 이용한다. 공립병원은 공간도 부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도 낮아 주로 흑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립병원은 의료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진료 수가가 매우 높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을 때는 우선 1차 진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개인병원(가정의가 운영)을 찾아 검진을 받으며, 개인병원에서 처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간다.

남아공에서는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일종의 보증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개요

전반적으로 온대성 및 아열대성 기후에 속하며 인도양에 접해 있는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보다 온난 다습하다. 남아공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5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심하며 수도권 지역인 요하네스버그는 해발 1,750m 지점에 위치하여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기후 상태이다. 반면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양에 접해 있는 더반 지역은 습기가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이고, 11~3월이 여름, 6~9월이 겨울로 대별되며, 봄, 가을은 짧은 편이다. 겨울철은 건기이고 여름철이 우기에 해당하며 전국적인 연 평균 기온은 약 17도, 강수량은 464mm이다. 연간 강수량이 200mm이 이하인 지역이 20%, 200~600mm 사이가 50%, 600mm 이상이 30% 정도 된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수도권이며 경제의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해발 1,750m 지점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건조한 기후를 보이며, 여름철에도 그늘로 가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겨울에는 추동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간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아침 15도, 낮 30도 정도이고 겨울은 아침 5도, 낮 15도 정도이다.

케이프타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철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기후이며 여름철에도 평균기온 20도 정도의 매우 쾌적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서 장소이다.

더반 지역은 난류지역인 인도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고 다소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평균기온 1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도시의 기후표

도 시	월 별	평균 기온(섭씨)	강수량(mm)	우천일
요하네스버그	1월	20.1	125	16
	7월	10.4	4	1
케이프타운	1월	20.9	150	6
	7월	12.2	82	12
더 반	1월	22.7	137	18
	7월	12.6	12	3

자료: 남아공 기상청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남아공은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리다. 예를 들면, 한국이 17:00일 때 남아공은 같은 날 10:00시이다.

2) 근무 시간

관공서 및 기업은 통상 오전 08:00시부터 16:00시까지 근무한다. 은행 영업시간은 09:00~15:30까지이며, 토요일은 09:00시부터 11:00시까지이다.

일반 기업체들의 경우 금요일 오후 3시경부터는 대부분 퇴근을 시작하여 금요일 오후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점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은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슈퍼마켓의 경우 단축 영업한다. 참고로 남아공에서는 서머타임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

다. 주요 단위

남아공은 우리나라와 같이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도량형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사용 전압은 220~250V/50Hz로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플러그가 3개의 둥근 홈이 있는 삼각형 모양이므로 어댑터가 필요하다.

길이

구 분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1 m	0.0006	1.0936	3.2808	39.37	1
1 inch	0.000016	0.0278	0.0833	1	0.0254
1 foot	0.00019	0.3333	1	12	0.3048
1 yard	0.0006	1	3	36	0.9144
1 mile	1	1,760	5,280	63,360	1,609.3

무게

구 분	파운드(lb)	온스(oz)	그레인(gr)	톤(ton)	킬로그램(kg)
1 kg	2.20459	35.237	15,432	0.001	1
1 ton	2,204,559	35,273	1,543,2000	1	1,000
1 gr	0.00014	0.00228	1	-	0.00006
1 oz	0.0625	1	437.4	0.000028	0.02835
1 lb	1	16	7,000	0.00045	0.45359

라. 출입국/비자

1) 출입국 절차

남아공 출입국 시 출입국 심사 외에 특별한 절차는 없다. 다만 요하네스버그 이외의 지역, 즉 케이프타운, 더반 등 남아공 내 주요 도시로 여행하는 경우,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 후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야 하며, 출국 시에도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지역에서 케이프타운으로 직항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케이프타운 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면세품 보유한도

품 목	보 유 한 도
담배	400개비
Tobacco	250 MG
Cigars	50 개비
브랜드, 위스키	1리터
포도주	2리터
향수	50 ML
일반 선물 용품	1,200란드(약 200 달러) 이하: 면세
	1,200~1,1250란드(약 200~1,900달러): 20%
	1,1250란드 이상(약 1,900달러 이상): 관세 및 부가세(14%)

자료: 남아공 출입국관리소

3) 출입국 유의 사항

취업, 유학,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WORK PERMIT 및 STUDY PERMIT을 사전에 주한 남아공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출국 시에는 남아공 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14%)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BOARDING PASS 발급 전 항공권과 영수증, 해당 물품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면세구역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 금액은 란드화 또는 미화로 수령 가능하다.

4) 예방접종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방 접종이 필요 없으나, 여름철(11~2월)에 남아공화국과 모잠비크 국경지역, 남아공화국과 짐바브웨 국경지역, 남아공화국과 보츠와나 국경 지역 등 북부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말라리아 및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를 경유하여 남아공으로 입국할 경우 예방 접종 증명을 요구하므로 한국에서 예방 접종 증명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5) 비 자

미국, EU, 캐나다 국민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 없으나, 그 밖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1개월 전까지 주재국 소재 남아공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시에는 신청서, 여권, 고용 주공문, 항공 일정 및 비자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다.

한-남아공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남아공은 한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1개월간 입국,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한 남아공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하나,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남아공 내 무부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2회까지 가능하다. 연장신청에는 약 1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남아공 비자종류는 남아공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southafrica-embassy.or.kr/kr/visa/visas_3.php)에 자세히 나와 있다.

남아공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하나 일반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 15일간의 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국허가는 담당 입국심사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재출국이 의심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호텔 밴을 이용하는 것인데, 사전에 호텔에 픽업을 예약해 놓으면 된다. 둘째,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불안한 현지 치안 사정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 출장자들이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다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득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인이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준다.

남아공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대중교통편은 없다. 그리고 택시가 매우 위험하므로 가급적 남아공 내 지인, 호텔 셔틀버스 또는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좋다.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남아공 화폐단위는 란드(RAND)로 약칭은 R이며, 주화는 1, 2, 5, 10, 20, 50센트 및 1, 2, 5란드가 있고 지폐는 10, 20, 50, 100, 200란드가 있다.

2) 환율

남아공 란드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2001년 말부터 2002년까지 미화강세 현상과 투기적인 외환거래로 1달러 대비 10란드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달러화 약세현상과 금값 상승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7년 평균환율은 1달러=7.0544란드를 기록하였다.

남아공 환율은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크므로 환율변동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 남아공 환율은 한 달에도 몇 번씩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2009년 5월 12일 기준 환율은 1달러 당 8.45란드 수준이다.

3)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거리의 환전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환율은 각 환전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암시세 환율은 없다. 환전 시에는 1.3%의 환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쓰고 남은 란드화를 달러로 재 환전할 경우에는 당초 란드화로 환전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여권, 항공권 등을 제시하여 환전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 달러화로의 환전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외화를 불법 유출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언제든지 환전 가능하며 환전 시에는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정한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남아공에 유입되어 그 유입자금이 다시 반출되는 경우 외화유입 시 은행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반출이 가능하다.

환전 시에는 은행마다 환율이 상이하며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의 환율이 유리하다. 최근 공항에서 환전하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남아공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소액 결제라도 부담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비자, 마스터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면 남아공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바. 교통/통신

1) 입국 항공편

우리나라에서 남아공으로 오기 위해서는 직항편이 없으므로, 제3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은 여행객 및 출장자들이 인천-홍콩-요하네스버그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대략 18시간 정도이다. 이 밖에 싱가포르나 두바이를 경유해 남아공에 입국할 수 있다.

현재 남아공에 우리나라 항공사는 취항해 있지 않으며,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는 케세이 패시픽 항공, 두바이에서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이용한다. 최근 타이항공이 남아공에 취항하였으므로 태국을 경유한 입국도 가능하다.

2) 남아공 취항 항공사 리스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는 아래와 같이 총 42개의 항공사가 취항해 있다.

Air Austral Tel)+27 11 262 0508	Air Zimbabwe Tel)+27 11 970 1687	Ethiopian Airlines Tel)27 11 616 7624
Air Botswana Tel)+27 11 447 6078	British Airways Tel)+27 11 441 8400	Ghana Airways Tel)+27 11 622 4005
Air France Tel)+27 11 770 1671	Cameroon Airlines Tel)+27 11 616 9482	InterAir Tel)+27 11 616 0636
Air Gabon Tel)27 11 807 4011	Cathay Pacific Airways Tel)+27 11 394 0905	Kenya Airways Tel)+27 11 881 9696
Air Madagascar Tel)+27 11 289 8222	Comair Limited Tel)+27 11 921 0111	Khalifa Airlines Tel)+27 11 880 7200
Air Malawi Tel)+27 11 390 1211	Congo Airlines Tel)+27 11 390 1134	KLMRoyal Dutch Airlines Tel)+27 11 961 6700
Air Namibia Tel)+27 11 390 2876	Egypt Air Tel)+27 11 880 4547	Kulula.com Tel)+27 11 921 0111
Air Seychelles Tel)27 11 452 0932	El-Al Tel)+27 11 880 3232	LAMMozambique Airlines Tel)+27 11 622 4889
Air Tanzania Tel)27 11 390 3488	Emirates Tel)+27 11 390 1215	Lufthansa Tel)+27 11 325 0870
Swiss Airlines Tel)27 11 390 2446	TAAGAngolan Airlines Tel)+27 11 450 1116/7	TAP Air Portugal Tel)+27 11 455 4509
VirgiAtlantic Airways Tel)+27 11 340 3400	Zimbabwe Express Airlines Tel)+27 11 395 3579	MalaysianAirlines Tel)27 11 880 9614
Olympic Airways Tel)+27 11 880 1614	Qantas Airways Tel)+27 11 441 8491	SA Airlink Tel)+27 11 395 3579
Sabelair Tel)+27 11 327 3000	Singapore Airlines Tel)+27 11 880 8560	South African Airways Tel)+27 11 978 1000
Nationwide Tel)+27 11 327 3000	SA Express Tel)+27 11 978 5577	Varig Brazilian Airlines Tel)+27 11 289 8065

3) 저렴한 예약방법

남아공행 항공편을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격이 약간 오르는 했지만 한-남아공 왕복 항공권은 대략 130만 150만 원 사이이다

4) 국내교통

남아공 국내교통은 항공, 철도, 버스 등이 있는데, 남아공의 경우 국토면적이 넓어 원거리 이동 시에는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한다. 철도 및 버스는 치안 문제로 인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근거리 이동 시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흑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이 외에 우리나라 봉고차와 같은 형태의 소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주로 흑인들이 이용한다. 일부 관광객들이 호기심에서 흑인들이 이용하는 봉고차를 탑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도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남아공은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5.5배에 달하고 있어 남아공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나라 관광객 및 출장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는 국제 및 국내선 공항이 있다.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은 하루에도 수회씩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항공임 가격은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기준, 20만~30만 원 정도이다.

남아공에는 우체국이 전국적으로 2,760여 개가 있고, 매일 약 800만 개 이상의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 미리 선불을 지급한 대량으로 배포되는 우편이다. 흑인 신정부 출범 이후 우편물 수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 70만 개의 새로운 우체통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남아공의 우편제도는 외형상 모습은 잘 갖추었으나 우편 지연 배달과 배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중요한 문서를 수발해야 하는 개인이나 직장은 우체국 내에 사서함을 별도로 임대하여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다.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분실 및 도난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DHL 등과 같은 특사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은 비싸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5) 특사 운송회사

남아공에서 이용할만한 특사우편 회사는 DHL, TNT Express 등이 있다. 특사우편의 가격은 일반 서류의 경우,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기준 약 26달러 정도이고 요하네스버그-서울의 경우는 90~100달러 정도이다. 주요 특사운송회사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운송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가져간다.

- DHL Worldwide Express SA
 - 전화: (27-11) 921-3856
- TNT Express Worldwide SA
 - 전화: (27-11) 977-0300

6) 한국으로 국제전화 거는 법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 국제전화 00(국제전화)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한국 Collect Call(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0800-9900-82
- 호텔에서 사용하실 경우 0번을 먼저 누른 후 사용

7) 인터넷 사용 환경

남아공의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인데, 전용선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전화선을 통해 ADSL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는 512Kbps~1Mbps 정도이다.

남아공은 인터넷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어 매월 사용 용량에 따라 사용 요금이 다르다. 매월 6G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 요금은 약 \$85 이다.

사. 호텔/식당

1) 특급호텔

남아공에는 세계 100대 호텔 등급에 포함되는 호텔이 2개 있으며 이 중 하나는 SUN-CITY 에 있는 PALACE 호텔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TABLE BAY 호텔이다. 이들 호텔은 최상급 호텔로 5 STAR 급 이상인 6 STAR급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 5 STAR 급 호텔은 주요 대도시에서 위치하고 있다.

남아공 고급호텔 정보

호텔 명	위 치	전화번호	가 격
PALACE HOTEL	SUN CITY	(011)780-7800	약 500달러/single
TABLE BAY HOTEL	CAPE TOWN	(021)438-4444	약 400달러/single
MICHALANGELO HOTEL	JOHANNESBURG	(011)282-7000	약 350달러/single
SANDTON SUN	JOHANNESBURG	(011)780-5000	약 300달러/single
HILTON	JOHANNESBURG	(011)322-1888	약 300달러/single
HYATT	JOHANNESBURG	(011)280-1234	약 300달러/single

주: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요금차이가 있으며 현지화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상기 요금은 공식 요금이므로 실제 예약 시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상기 요금 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음.

자료: 남아공 관광청

2) 비즈니스 호텔

남아공은 각 지역에 비즈니스급 호텔이 잘 발달되어 있고 호텔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단, 휴가시즌이나 관광시즌에 주요 관광지의 호텔은 예약하기가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도심의 호텔은 예약이 용이하다.

남아공 비즈니스 호텔 정보

호텔 명	위 치	전화번호	가 격
CROWNE PLAZA	JOHANNESBURG	(011)783-5262	약 200달러/single
HOLIDAY INN	CAPE TOWN	(021)488-5100	약 200달러/single
HOLIDAY INN	DURBAN	(031)332-7361	약 160달러/single

주: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요금차이가 있으며 현지화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상기 요금은 공식 요금이므로 실제 예약 시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상기 요금 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음.

자료: 남아공 관광청

3) 주요 식당

한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대장금	JOHANNESBURG	(011)234-7292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국식당
고려정	CAPE TOWN	(021)447-8427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국식당
낙생	CAPE TOWN	(021)439-3373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국식당
성북정	CAPE TOWN	(021)447-1500	케우프타운에 있는 한중일식당

한식당의 경우 된장찌개, 김치찌개 기준 가격은 약 \$13 정도이며 저녁 식사용 세트 메뉴는 약 25달러 수준이다.

중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Orient Fusion	JOHANNESBURG	(011)883-0923	Rivonia Road에 위치하며 퓨전식 중식을 맛볼 수 있음.
LAI LAI	JOHANNESBURG	(011)447-5261	SANDTON 지역에 위치, 가격 저렴, 맛도 좋음.

중식당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 가격대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저녁 세트 메뉴는 보통 17달러 정도이다.

일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Yamato	JOHANNESBURG	(011) 268-0511	Rose Bank 인근 지역
JAPA	JOHANNESBURG	(011)780-5157	Rivonia Road 옆 한국슈퍼 인근에 위치, 정통 일식집

일식당의 경우 우동 한 그릇 가격이 약 10달러 정도이며, 저녁 세트메뉴는 25달러 정도이다.

양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BUTCHERSHOP	JOHANNESBURG	(011)784-8676	중심지인 SANDTON에 위치 각종 STEAK 요리로 유명
CASA MIA	JOHANNESBURG	(011)884-5116	중심지인 SANDTON에 위치 이탈리아식 요리로 유명
GIOUVANNI	JOHANNESBURG	(011)804-6401	샌톤 북부에 위치 피자과 파스타 요리가 유명

양식당의 경우 안심스테이크 기준 가격은 약 13달러 정도이다.

아. 관공서 관행

1) 개요

남아공의 관공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불친절하며 업무처리와 효율이 대단히 떨어진다. 특히 1994년 과거 백인정부에서 현 흑인정부로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인프라 구축의 미비 및 교육 부족으로 인해 행정착오가 많은 편이다. 특히 내무부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빠르지 못한 일 처리는 남아공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 정부 부처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나 업무처리 경험 미숙으로 인해 서비스의 속도와 질이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흑인정부는 과거 백인정권 시 투사에 대한 우대 정책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은행

모든 서비스가 고객이 아닌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좌예금 등 보통예금 거래 시에는 현금 보관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통상 수표입금 시에는 결제 시기가 10일이나 걸려 급한 현금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등 은행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은행 진출규제 완화조치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국내은행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은행의 능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관행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민원 관련 부서

- 경찰: 늘어나는 범죄에 비하여 경찰력이 부족해 치안 확보가 아직은 요원하다.
- 세관 및 세무서 등: 비교적 법 집행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화 및 우체국: 우편배달 중 분실 사고가 빈발하며 전화 설치 기간은 매우 오래 걸린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현황

남아공은 토요일 및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12일간의 법정공휴일이 있다.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2011년도 법정 공휴일

01.01	NEW YEAR'S DAY
03.21	HUMAN RIGHTS DAY
04.22	GOOD FRIDAY
04.25	EASTER MONDAY
04.27	FREEDOM DAY
05.01	WORKERS' DAY
05.02	PUBLIC HOLIDAY
06.16	YOUTH DAY
08.09	NATIONAL WOMEN'S DAY
09.24	HERITAGE DAY
12.16	DAY OF RECONCILIATION
12.25	CHRISTMAS DAY
12.26	DAY OF GOOD WILL

2) 출장 지양 기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담이 완전 불가능하고 금요일 오후에도 상담 자체가 어렵다.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남아공 휴가 기간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능하며,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는 부활절 연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거의 진행 되지 않으므로 동 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 시 유의 사항

1) 의복 준비

남아공은 남반구에 위치해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이므로 겨울철 출장 시에는 하복을, 여름철 출장 시에는 추동복을 준비해야 한다. 남아공 여름에는 기온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긴 소매의 춘추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겨울에는 추동복을 준비하되 한국에서 사용하는 오버코트와 같은 두꺼운 동복은 필요하지 않다.

2) 치안

남아공의 치안 상황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에 의한 사망 사고가 대부분이다. 야간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입은 절대 금물이다. 공항에서도 손가방 분실 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 택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텔을 통해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공항에서는 미터기를 부착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택시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승용차 이용은 금물이다. 택시요금은 매우 비싸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SANDTON 지역 호텔까지 택시 요금은 약 200란드 정도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가급적 택시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남아공에서 Safe Cab이라는 택시가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안전한 택시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Safe Cab 전화번호는 086-166-5566이다.

4)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응급한 상황일 때에는 전화번호 10111을 누르면 경찰과 직접 연결된다. 경찰을 통해 앰بول런스 및 사고 수습반이 출동한다.

5) 팁 관행

식당에서는 10% 정도의 봉사료를 지급하며 호텔에서 룸 서비스나 포터에게 1달러 정도 팁을 지불한다. 택시 이용에는 팁이 필요 없다. 공항에 상주하는 포터들은 터무니 없이 높은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포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공항포터에게는 10란드나 미화 1달러 정도의 팁을 주면 된다.

6) 식수

남아공의 수돗물은 직접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의 대부분은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최근에는 유행처럼 생수를 마시는 것이 번지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은 수돗물을 직접 마실 정도로 남아공 수돗물 사정은 좋다.

7) 쇼핑

남아공의 일반 공산품 가격은 매우 높다. 대부분의 공산품이 유럽 등지에서 수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수준도 좋지만 가격은 유럽보다 높다. 그러나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과일, 육류 등의 가격은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각 주요 도시별로 쇼핑몰이 잘 발달되어 있어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과 같은 백화점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전문 슈퍼체인점이 발달해 있다. 기념품점도 각 호텔마다 있으며 각 쇼핑몰에는 수개의 기념품점이 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념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리의 FREE MARKET이 있는데 여행자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요하네스버그의 주요 쇼핑센터는 Sandton City, Reose Bank Shopping Mall, Fourways Shopping Mall 등이 있는데, 시설은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잘 꾸며져 있다.

남아공의 특산품으로는 악마의 발톱(관절염에 특효), 루이보스티(Tea), 타조 알, 나비 액자 등이 유명하다. 이 외에 흑인들이 만든 각종 공예품들도 인기가 좋다. 베크 시장에서 특산품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의 경우 바가지를 쓰기 쉬우므로 상인들이 부르는 가격의 30~50% 정도를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하면 된다.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내 면세점에도 특산물 코너가 있으므로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주요기관 연락처

기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경찰서	콜센터	10111	
대사관	BLDG., #3, GREENPARK ESTATES 27, GEORGESTORRRARDRIVE, ROOENKLOOF, 0181, PRETORIA	(012)460-2508	(012)460-1158
KOTRA	18TH FL., SANDTON CITY OFFICE TOWER, CORNER OF RIVONIA ROAD & 5TH STREET, SANDTON	(011)784-2940	(011)784-2983
한인회	P.O.BOX 1550, GERMISTON	(011)454-3197	(011)454-3198

콜택시

지 역	회사명	전 화
SANDTON	ROSES	011-403-9625
	AXI	011-648-1212
CAPETOWN	UNICAB	021-448-1720
	MAGICAB	021-934-5455
DURBAN	AUSSIE	031-309-7888
#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 로비에 콜택시를 부탁하는 것이 안전		

공항

공 항	전화
O.R. Tambo Int'l Airport (JHB Int'l)	011-921-6911
Cape Town Int'l Airport	021-934-0407
Durban Int'l Airport	031-408-1000

주요 정부 부처

부처 명	주 소	전 화	팩 스
농무부	PRIVATE BAG X250, PRETORIA	(012)319-6000	(012)319-3454
교육부	PRIVATE BAG X895, PRETORIA	(012)312-5911	(012)321-6260
환경관광부	PRIVATE BAG X447, PRETORIA	(012)310-3911	(012)322-2682
재무부	PRIVATE BAG X115, PRETORIA	(012)315-5111	(012)323-3262
외무부	PRIVATE BAG X152, PRETORIA	(012)351-1000	(012)351-0257
내무부	PRIVATE BAG X114, PRETORIA	(012)314-8911	(012)326-4571
법무부	PRIVATE BAG X081, PRETORIA	(012)315-1111	(012)326-0991
노동부	PRIVATE BAG X117, PRETORIA	(012)309-4000	(012)322-0413
광물자원부	PRIVATE BAG X059, PRETORIA	(012)317-9000	(012)322-3416
상무부	PRIVATE BAG X059, PRETORIA	(012)310-9791	(012)322-0298

은행

은행 명	주 소	전 화	팩 스
RESERVE BANK	P.O.BOX 427, PRETORIA	(012)313-3911	(012)313-3749
FNB	SUITE 402, WEST TOWER, SANDTON SQUARE	(011)320-5700	(011)320-5701
STANDARD BANK	11, ALICE LANE, SANDTON	(011)636-2929	(011)636-3188

경제 단체

단체 명	주 소	전 화	팩 스
산업개발원	P.O.BOX 784055, SANDTON, 2146	(011)269-3000	(011)269-3116
상공회의소	P.O.BOX 91267, AUCKLAND PARK	(011)446-3830	(011)446-3847

타. 관광 명소

1) 요하네스버그 시내 관광 명소

□ GOLD REEF CITY

과거에는 금광이었으나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요하네스버그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AND-TON 지역으로부터 택시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시설이 있고 지하 280m까지 직접 내려가서 과거 금광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 입장료와 지하금광 입장료가 개인당 약 20달러 정도이다.

□ LION PARK

요하네스버그 중심지에서 서북쪽 외곽으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사파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시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약 50여 마리의 사자들이 있으며 기타 얼룩말 등 초식 동물들이 있다. 입장료는 승용차당 110란드 (약 2만 원)이며 승용차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2) 요하네스버그 시외 관광 명소

□ SUN CITY

남아공 대기업 중 하나인 SUN GROUP에서 조성한 도시이다. 과거 백인정부시절 남아공 내에서는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었던 관계로 소규모 흑인종족 도시국가였던 보프타츠헤나를 SUN GROUP에서 영구 임대하여 카지노를 비롯한 유락도시를 건설하였다. 카지노, 호텔, 수영장, 골프장 등으로 구성된 SUN CITY는 요하네스버그 서북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로 약 2시간 거리이다. 요하네스버그 SANDTON SUN 호텔 앞에서 매일 오전 09:00시 관광버스가 출발하며 당일 SUN CITY에서 오후 5시에 관광버스가 돌아온다. 94년 흑인정부 집권 이후 남아공화국으로 편입되었으며 SUN CITY 내 GARY PLAYER 골프코스는 우승자에 대한 상금이 가장 많은 MILLION DOLLAR CHALLENGE 대회로 유명하다.

□ 드라켄스버그

남아공 동부지역을 따라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남아공 북쪽 끝까지 뻗어나간 산맥으로 최고 봉에는 해발 3,000~4,000m의 산맥이 형성되어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 오기도 하며 스키장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자연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산속 야영장이나 산장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 테이블 마운틴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산 정상이 마치 테이블처럼 평평하다. 케이블카를 통해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케이프타운 시내와 대서양, 인도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 케이프 포인터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희망봉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개척 시 처음 도착한 지점으로 유명하다.

□ National Kruger Park

남아공 북쪽 음푸말랑가주에 소재한 자연 동물 공원으로 사자, 코끼리, 기린 등 각종 야생동물을 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곳이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된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2011년 5월

- 아프리카로드스 2011 (Africa Roads 2011)
 - 성격: 교통, Africa's Road Sector
 - 기간: 05/03 ~ 05/06
 - 주최자: Terrapinn (samanatha.pickard@terrapinn.co.za)
 - 장소: Sandton Convention Centre

- 티비쇼 (The TV Show Africa 2011)
 - 성격: 방송, 통신
 - 기간: 05/30 ~ 06/02
 - 주최자: Terrapinn (arlene.vanzyl@terrapinn.co.za)
 - 장소: Sandton Convention Centre

□ 2011년 6월

- 아프리카 철도 전시회(African Rail 2011)
 - 성격: 교통
 - 기간: 06/27 ~ 07/01
 - 주최자: Terrapinn (samkelwa.madlabane@terrapinn.co.za)
 - 장소: Sandton Convention Centre

□ 2011년 8월

- 인터넷 쇼 (The Internet Show)
 - 성격: 인터넷, IT, 텔레커뮤니케이션
 - 기간: 08/02 ~ 08/03
 - 주최자: Terrapinn (jaylene.naidoo@terrapinn.co.za)
 - 장소: Sandton Convention Centre
- 전국 보트 쇼 (National Boat Show)
 - 성격: 조선, 보트
 - 기간: 08/12 ~ 08/14
 - 주최자: Big Event
 - 장소: The Coca-Cola Dome
- 마케스 월드오브 이벤트 2011 (Markex and World of Events 2011)
 - 성격: 광고, 마케팅
 - 기간: 08/23 ~ 08/25
 - 주최자: Specialised Exhibitions (franl@specialised.com)
 - 장소: 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al Centre
- 아프리워터 (Afrewater)
 - 성격: 식품, 음료
 - 기간: 08/23 ~ 08/25
 - 주최자: Specialised Exhibitions (specialised@specialised.com)
 - 장소: MTN Expo Centre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www.gov.za : 남아공 정부 홈페이지로, 남아공 정부, 지방정부 조직체계 소개
- www.dti.gov.za : 남아공 무역산업부 홈페이지로, 조직 및 최신 무역정책 자료 소개

- www.treasury.gov.za : 남아공 재무부 홈페이지로, 입찰정보 수록
- www.parliament.gov.za : 남아공 국회 홈페이지
- www.csir.co.za : 남아공 과학 산업 연구소
- www.dbsa.org :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DBSA)
- www.idc.co.za :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 www.resbank.co.za : 남아공 중앙은행 홈페이지

□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www.sacci.co.za : 남아공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www.naamsa.co.za : 남아공 자동차협회 홈페이지
- www.exsa.co.za : 남아공 전시장협의회 홈페이지

□ 금융기관, 투자회사

- www.absa.co.za : 남아공 시중은행 중 최대은행 ABSA 은행 홈페이지
- www.nedbank.co.za : 남아공 시중은행 NED 은행 홈페이지
- www.standardbank.co.za : 남아공 시중은행 홈페이지
- www.fnb.co.za : 남아공 시중은행 First National Bank 홈페이지

□ 언론기관

- www.thestar.co.za : 남아공 최대 일간지
- www.bday.co.za : 남아공 최대 경제일간지

□ 기타

- www.ananzi.co.za : 남아공 국내 검색엔진
- www.bday.co.za : 남아공 최대 경제일간지